

정책보고서 2002-09

自活後見機關 評價結果와
政策代案

卞在寬 林正寄 兪媛善

韓國保健社會研究院
保 健 福 祉 部

머 리 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아직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새롭게 시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점검과 제도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 있는 수급대상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여의존을 예방하면서 빈곤탈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인 자활사업의 활성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이 1996년에 설립되기 시작하여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자활지원센터 20개 기관에서 2001년 12월 현재 169개 기관으로 급속히 확대되어가고는 있으며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단위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정체성이 정립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활사업의 목표와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활후견기관의 표준화된 모델을 제시하고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조직체계, 사업과정·집행 등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자활후견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각 기관간의 편차를 조정하고 어떤 기관이든지 각 지역 단위에서 최소 수준 이상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현시점에서의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자활사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변재관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우리 연구

원의 노대명 책임연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황미영 교수, 안산공과대학 이문국 교수, 전북대학교 홍경준 교수, 호남대학교 오승환 교수, 부경대학교 이재원 교수, 호서대학교 이현송 교수, 한신대학교 이인재 교수, 성공회대학교 이영환 교수, 숭실대학교 유태균 교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김수현 연구부장 등의 평가위원의 참여와 함께 우리 연구원의 임정기 연구원, 유원선 연구원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 연구진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협조와 함께 조언을 해준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김원중 과장, 은성호 사무관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 고생한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하고, 이 보고서를 읽고 여러 가지 유익한 검토의견을 준 노대명 책임연구원, 이선우 책임연구원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참여한 연구진의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2年 1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鄭敬培

目 次

要 約	9
第 1 章 自活後見機關 評價의 背景 및 目的	18
第 2 章 自活後見機關 評價의 實施	20
第 1 節 評價對象機關	20
第 2 節 評價體系의 構成	21
第 3 節 評價委員	24
第 3 章 自活後見機關 評價結果分析	25
第 1 節 總點 및 評價領域別 點數	25
第 2 節 評價領域別 機關分布	31
第 3 節 相關關係	62
第 4 節 比較分析	70
第 4 章 政策提言	76
附 錄	79

表 目 次

〈表 2- 1〉 自活後見機關 評價對象施設	20
〈表 2- 2〉 自活後見機關 評價體系	23
〈表 3- 1〉 2000年 以前에 設立된 20個 自活後見機關 記述統計値 ...	26
〈表 3- 2〉 2000年 以前에 設立된 20個 自活後見機關 換算點數	27
〈表 3- 3〉 2000年에 設立된 50個 自活後見機關 記述統計値	29
〈表 3- 4〉 2000年에 設立된 50個 自活後見機關 換算點數	30
〈表 3- 5〉 計劃領域 事業計劃 및 欲求把握 項目의 頻度分布(1)	32
〈表 3- 6〉 計劃領域의 事業計劃 및 欲求把握 項目의 頻度分布(2) ..	34
〈表 3- 7〉 計劃領域의 外部環境 및 資源連繫 項目 頻度分布	37
〈表 3- 8〉 執行過程 領域의 組織體系 項目 頻度分布	39
〈表 3- 9〉 自活後見機關 專擔人力 現況	40
〈表 3-10〉 自活後見機關 社會福祉士 資格證 現況	41
〈表 3-11〉 自活後見機關 豫算 中 人件費, 事業費, 機關運營費 比率 ...	42
〈表 3-12〉 運營主體 支援金 現況	44
〈表 3-13〉 執行過程 領域의 財政運營 項目 頻度分布	45
〈表 3-14〉 自活共同體 事業 參與者 比率	47
〈表 3-15〉 成果領域의 投入成果 項目 頻度分布	48
〈表 3-16〉 事業實績	49
〈表 3-17〉 成果領域의 算出成果 中 自活共同體 頻度分布	51
〈表 3-18〉 自活共同體 現況	52
〈表 3-19〉 自活共同體 給與와 收益金 規模 現況	52
〈表 3-20〉 成果領域의 算出成果 中 自活共同體 頻度分布	54
〈表 3-21〉 成果領域의 算出成果 中 自活勤勞 頻度分布	56
〈表 3-22〉 自活勤勞 收益金 積立 現況	57

〈表 3-23〉 成果領域의 算出成果 中 其他 特化事業 頻度分布	58
〈表 3-24〉 其他 特化事業	59
〈表 3-25〉 成果領域의 結果成果 頻度分布	60
〈表 3-26〉 自活後見機關 結果成果	61
〈表 3-27〉 評價領域間 相關關係	63
〈表 3-28〉 計劃領域의 評價項目과 總點과의 相關關係	65
〈表 3-29〉 執行過程 領域의 評價項目과 總點과의 相關關係	67
〈表 3-30〉 成果領域의 評價項目과 總點과의 相關關係	69
〈表 3-31〉 地域別 比較	70
〈表 3-32〉 運營主體別 比較	71
〈表 3-33〉 20個所 自活後見機關別 比較	73
〈表 3-34〉 50個所 自活後見機關別 比較	74

圖 目 次

[그림 3-1] 自活後見機關 豫算 中 人件費, 事業費, 機關運營費 比率	43
---	----

要 約

1. 自活後見機關 評價의 背景 및 目的

- 자활후견기관의 표준화된 모델을 제시하고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조직체계, 사업과정·집행 등에 대한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하여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자활후견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각 기관간의 편차를 조정하고 어떤 기관이든지 각 지역 단위에서 최소 수준 이상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현시점에서의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자활사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 자활후견기관 평가의 목적을 정리해보면,
 - 첫째, 평가과정을 통하여 자활후견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이다. 즉, 자활후견기관들이 조직체계로서 정비되고 각 실무자의 직무에 대한 이해와 명확한 업무분장 등이 이루어지며 대상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함.
 - 둘째, 모든 자활후견기관이 최소 수준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한다. 즉, 대상이 되는 70개 기관 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느 기관이든지 최소한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목적에 기반하여 1996년 이후부터 1999년까지 지정된

20개 기관과 2000년 7월에 지정된 50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2. 自活後見機關 評價의 實施

□ 評價對象機關

- － 2001년 자활후견기관 평가대상시설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설립된 20개의 자활후견기관과 2000년 8월에 지정 받아 시작된 50개의 자활후견기관으로 총 70개소임.
 - 그러나, 2000년 이전에 시작된 20개의 후견기관과 2000년에 시작된 50개의 기관은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리다는 것을 고려하여 20개의 기관과 50개의 기관을 분리하여 평가결과를 따로 분석함.

□ 評價體系의 構成

- － 자활후견기관의 평가지표는 계획, 집행과정, 성과의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됨.
 - 계획영역은 총 17개의 평가지표로 ‘사업계획 및 욕구파악’ 분야의 지역별 사업계획의 구체성 5문항, 기관특성별 사업계획의 적합성 4문항, 대상자 선정 및 욕구 적절성 2문항으로 11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외부환경 및 자원연계’ 분야의 외부자원동원의 적절성 6문항으로 구성되었음.
 - 집행과정영역은 총 11개의 평가지표로 ‘조직체계’분야는 조직의 체계성 및 관리의 적절성 5문항, 인력규모 2문항으로 7개의 평가지표이며, ‘재정운영’분야는 재원의 적절성 4문항

으로 구성되었음.

- 성과영역은 총 24개의 평가지표로 투입성과, 산출성과, 결과성과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입성과’분야는 예산집행실적 1문항, 사업별대상자 참여실적 2문항, 사례관리실적 2문항으로 총 5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음. ‘산출성과’ 분야는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기타 특화사업으로 나누었으며, 자활공동체 분야는 총 9개의 지표로, 자활근로분야는 총 5개의 지표로, 기타특화사업분야는 특화사업수행 1문항으로 구성되었음. ‘결과성과’ 분야는 상위프로그램 전환실적 1문항과 자활성공실적 3문항으로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 － 전체적으로 3점을 만점으로 하는 문항이 44문항(44문항×3점=132점), 2점을 만점으로 하는 문항이 4문항(4문항×2점=8점), 200%가중치 문항이 3문항(3문항×6점=18점), 300%가중치 문항이 1문항(1문항×9점=9점)으로 총 167점을 만점으로 함.
- － 현장평가소견서
- 167점 만점에 평가위원들이 현장평가 이후 작성한 현장평가소견서에서 직원이직률, 지역특성, 기관장특성, 부업장 실적등을 반영하여 5%를, 자활공동체 노력정도에 5%의 가중치를 주어, 10%의 가중치로 총 183.7점을 최종 만점으로 함.

3. 自活後見機關 評價結果分析

□ 總點 및 評價領域別 點數

- － 2000년도 이전에 설립된 20개의 자활후견기관
- 계획영역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살펴보면,

최소 76, 최대 100, 평균 90.65, 표준편차 7.197로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

- 집행과정 영역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최소 62, 최대 100, 평균 85.86, 표준편차 10.0으로 역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성과영역에 있어서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최소 30, 최대 87, 평균 57.02, 표준편차 19.709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와 높은 편차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자활후건기관의 사업이 아직 초기단계로써 성과가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자활공동체 문항이 100점 환산점수로 평균 31.85, 표준편차 40.472로 자활공동체를 인정받지 못한 기관들이 자활공동체 항목 전체에 점수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낮은 평균과 높은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으로 보임.
- 총점은 100점 환산점수로 살펴보면 총점이 최소 51.50, 최대 89.22, 평균 72.90, 표준편차 11.580이며 현장평가 소견서 점수를 10% 포함한 최종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최저 50.45, 최고 85.66, 평균 71.32, 표준편차 10.275로 나타나 대부분의 자활후건기관이 최저수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2000년에 설립된 50개의 자활후건기관

- 계획영역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최소 56, 최대 98, 평균 86.81, 표준편차 9.162로 나타남.
- 집행과정 영역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소 59, 최대 100, 평균 82.62, 표준편차 10.166으로 2000년 이전에 설립된 20개의 기관에 비해서는 평균점수가 약간 낮게 나

타나고 있으나 계획영역, 집행과정 영역이 각각 86.81, 82.61로 전체적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음.

- 성과영역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최소 24, 최대 89, 평균 52.71, 표준편차 17.399로 2000년 이전의 기관과 마찬가지로 낮은 평균과 높은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음.
-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총점이 최소 41.92, 최대 89.82, 평균 68.93, 표준편차 10.585이며 현장평가소견서가 최소 10, 최대 100, 평균 51.20, 표준편차 24.714로 이를 가산한 최종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최소 39.92, 최대 85.29, 평균 67.32, 표준편차 9.356으로 평가되었음.

□ 相關關係

一 評價領域과 總點의 相關關係

- 전체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우선 총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평가영역은 성과영역으로 나타남(0.931). 즉, 자활후견기관의 성과가 높을수록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가 높게 나타났음.
- 각 영역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계획영역은 집행과정 영역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집행과정영역은 성과영역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一 評價項目과 總點과의 相關關係: 計劃領域

- 계획영역은 전체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총점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사업의 규모(0.555)로 사업규모가 크면 클수록 전체 평가결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업목표 역시 총점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는데(0.503),

자활사업의 규모 못지않게 사업목표 역시 얼마나 충실한지가 자활사업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2000년 이전 설립한 20개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를 넘어서 사업계획의 구체성(0.652)과 기관특성별 사업(0.625)이 총점과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이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기관특성별 사업계획의 적합성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2000년 이후 설립한 50개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가 총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0.526), 사업목표(0.48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및 업무협조(0.481), 사업목적의 명확성(0.448) 등이 높게 나타났음. 즉, 2000년 이후 설립한 50개의 시설의 경우에는 특성화에 앞서 사업계획의 안착화와 외부자원의 영향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음.

－ 執行過程 領域

- 집행과정 영역의 평가항목과 총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전체 참여 대상자 대비 전담 인력비중(0.448), 사업인력의 전문성과 경력(0.419) 등 인력 규모가 총점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집행과정에 있어 자활후견기관의 인력의 양과 질이 전체 자활후견기관의 평가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말해줌.
- 2000년 이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조직 체계보다는 재정운영이 총점과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민·관재원 확보 및 관리상태(0.652)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2000년 이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조직체계가 더욱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 인력규모 분야의 사업인력의 전문성과 경력(0.536), 전체 참여 대상자 대비 전담인력비중(0.438)이 총점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一 成果領域

- 전체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자활공동체의 산출성과가 총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공동체 구성원의 소득(0.658)이 총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이전 설립된 시설의 경우에도 자활공동체의 산출성과가 총점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구체적 항목별로 살펴보면, 투입성과 영역에서 자활공동체 사업 참여자 비율(0.80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활공동체 경영자문 연계정도 및 경영관련 교육실적(0.769)이 전체 자활후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00년 이후 설립된 시설의 경우 역시 자활공동체의 산출성과와 총점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공동체 구성원의 소득(0.602), 지역사회로의 환류(0.593),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 및 공개성(0.589), 사업계획달성정도(0.585), 자산·자기자본 부채비율(0.580), 공동체 규모(0.5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결과성과 분야에서 공동체 창업실적(0.571)과 투입성과 분야에서의 전체 참여자 규모(0.537)가 총점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比較分析

一 地域別 比較分析

- 강원지역의 자활후견기관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 경기, 충남, 광주, 부산, 서울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지역의 자활후견기관이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一 運營主體別 比較分析

- 운영주체별로 사회단체, 학교, 종교단체, 복지단체, 노동단체로 분류하여 평가결과를 비교분석 한 결과, 학교에서 운영하는 자활후견기관이 평균 133.08, 100점 환산점수 72.44로 가장 높은 총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복지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노동단체 순으로 나타남.

一 機關別 比較分析

- 2000년 이전 설립한 20개소의 경우, 100점 만점대비 점수를 살펴보면, 80점 이상이 6개 시설이며, 70점 이하가 7개소로 나타남. 20개소 평균점수가 71.27점이라고 할 때, 평균점수보다 낮게 나타난 시설이 10개소로 우리나라 초기 자활후견기관의 현재 수준이 제대로 정착화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0년 이후 설립된 50개소 자활후견기관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대비 점수를 비교해 보면, 80점 이상의 시설이 4개소, 70점 이하의 시설이 3개소로 나타났고 평균점수(71.27점)보다 낮은 시설은 7개소로 나타남. 2000년 이후 설립된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대체로 중간수준의 시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4. 政策提言

－ 評價道具의 再檢討

- 이번 평가는 사업이 실시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매우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구성하기가 힘들었고, 나아가 성과중심보다는 계획·과정 중심의 평가였음.
- 또한 질적 평가라기보다는 기관 및 프로그램 부문이 혼재된 양적 지표 중심의 평가였음. 차후 평가에서는 수정·개선되어 질적 중심의 평가체계로, 기관평가와 프로그램평가가 분리된 체계로 보완되어야 할 것임.

－ 評價結果 活用方案

- 전체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기초자료로서 자활후견기관의 ‘표준화 모형개발’ 등 자활지원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1차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공유함.
-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positive incentive를 도입하여 실무자 해외시찰, 프로그램비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함. 나아가 우수기관의 경우에는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 등에 ‘자활후견기관 분소’ 등을 지정·지원하여 자활사업의 저변을 확대함.
- 최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나타날 경우 예산 차등, 지정 취소 등의 행정결정을 유연하게 검토함.

第 1 章 自活後見機關 評價의 背景 및 目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아직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새롭게 시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점검과 제도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 있는 수급대상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여의존을 예방하면서 빈곤탈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인 자활사업의 활성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이 1996년에 설립되기 시작하여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자활지원센터 20개 기관에서 2001년 12월 현재 169개 기관으로 급속히 확대되어가고는 있으며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단위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정체성이 정립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활사업의 목표와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활후견기관의 표준화된 모델을 제시하고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조직체계, 사업과정·집행 등에 대한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하여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정책흐름 속에서, 특히 자활후견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각 기관간의 편차를 조정하고 어떤 기관이든지 각 지역 단위에서 최소 수준 이상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현시점에서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자활사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상자의 궁극적인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사업의 특성상 사업결과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2000년 10월 이후 자활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되는 평가이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 평가는 다른 기관평가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게 된다. 즉, 사업의 '결과'보다는 지금까지의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및 '과정'을 평가하는 의미가 강하며, 모든 자활후견기관에게 획일되고 세부적인 사업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성과 최소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평가지표를 통해 각 기관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자활후견기관 평가의 목적을 정리해보면, 첫째, 평가과정을 통하여 자활후견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이다. 즉, 자활후견기관들이 조직체계로서 정비되고 각 실무자의 직무에 대한 이해와 명확한 업무분장 등이 이루어지며 대상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둘째, 모든 자활후견기관이 최소 수준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한다. 즉, 평가의 대상이 되는 70개 기관 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느 기관이든지 최소한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평가의 목표도 여기에 맞추어진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하여 1996년 이후부터 1999년까지 지정된 20개 기관과 2000년 8월에 지정된 50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금까지의 자활지원사업을 재정비함과 더불어 신규기관에 대한 표준화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第 2 章 自活後見機關 評價의 實施

第 1 節 評價對象機關

2001년 자활후견기관 평가대상시설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설립된 20개의 자활후견기관과 2000년 8월에 지정 받아 시작된 50개의 자활후견기관으로 총 70개소이다. 그러나 2000년 이전에 시작되어 3, 4년 동안 후견사업을 실시해온 20개의 후견기관과 2000년에 시작되어 사업을 시작한지 막 1년이 된 50개의 기관은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리다는 것을 고려하여 20개의 기관과 50개의 기관을 분리하여 평가결과를 따로 분석하였다.

〈表 2-1〉 自活後見機關 評價對象施設

시도	2000년 이전 설립시설	2000년 이후 설립시설	전체
서울	4(20.0%)	7(14.0%)	11(15.7%)
부산	2(10.0%)	5(10.0%)	7(10.0%)
대구	2(10.0%)	2(4.0%)	4(5.7%)
인천	1(5.0%)	5(10.0%)	6(8.6%)
광주	1(5.0%)	2(4.0%)	3(4.3%)
대전	1(5.0%)	2(4.0%)	3(4.3%)
울산	2(10.0%)	-	2(2.9%)
경기	2(10.0%)	8(16.0%)	10(14.3%)
강원	1(5.0%)	3(6.0%)	4(5.7%)
충북	-	3(6.0%)	3(4.3%)
충남	1(5.0%)	2(4.0%)	3(4.3%)
전북	1(5.0%)	3(6.0%)	4(5.7%)
전남	1(5.0%)	2(4.0%)	3(4.3%)
경북	1(5.0%)	2(4.0%)	3(4.3%)
경남	-	3(6.0%)	3(4.3%)
제주	-	1(2.0%)	1(1.4%)
전체	20(100.0%)	50(100.0%)	70(100.0%)

第 2 節 評價體系의 構成

자활후견기관의 평가지표는 크게 계획, 집행과정, 성과의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계획영역은 총 17개의 평가지표로 ‘사업계획 및 욕구과약’분야의 지역별 사업계획의 구체성 5문항, 기관특성별 사업계획의 적합성 4문항, 대상자 선정 및 욕구 적절성 2문항으로 11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외부환경 및 자원연계’분야의 외부자원동원의 적절성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집행과정영역은 총 11개의 평가지표로 ‘조직체계’ 분야는 조직의 체계성 및 관리의 적절성 5문항, 인력규모 2문항으로 7개의 평가지표이며, ‘재정운영’ 분야는 재원의 적절성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성과영역은 총 24개의 평가지표로 투입성과, 산출성과, 결과성과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입성과’ 분야는 예산집행실적 1문항, 사업별 대상자 참여실적 2문항, 사례관리실적 2문항으로 총 5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산출성과’ 분야는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기타 특화사업으로 나누었으며, 자활공동체 분야는 총 9개의 지표로 실적 3문항, 지역사회환류정도 1문항, 사업추진의 현실적합성 3문항, 경영기술 1문항, 공동체운영구조 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활근로분야는 총 5개의 지표로 교육 및 공동체조직을 위한 활동 2문항, 지역사회환류정도 1문항, 사업수행과정 2문항이며, 기타특화사업분야는 특화사업수행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과성과’ 분야는 상위프로그램 전환실적 1문항과 자활성공실적 3문항으로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체계의 가중치는 관련 실무자들과 교수, 연구진과의 토의와 공청회를 거쳐 계획영역의 ‘외부환경 및 자원영역’ 분야 중 지역자원 협력정도에 200%를, 성과영역의 ‘산출성과’ 분야 중 기타 특화사업에 200%를, 성과영역의 ‘결과성과’ 분야 중 자활성공실적 취업실적지표에 200%, 공동체창업실적에 30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각 평가지표 문항은 3, 2, 1, 0점으로 계산되는데 세부평가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에 3점을,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1점을, 전혀 안되어 있으면 0점을 부여하고 1과 3점의 가운데를 포괄적으로 2점으로 부여하였다.

평가지표 중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고 판단되는 4개의 지표(업무분장의 명확성, 시설관리 및 안전점검 상태, 시설배치 및 장비관리상태, 대인 대물보험 가입여부)는 2점 만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또한 참여대상자 만족도 조사 문항(계획영역), 타후견기관과의 협력 체계(계획영역), 운영주체의 지원정도(집행과정 영역), 자활공동체사업 참여자비율(성과영역), 공동체규모(성과영역), 수익금적립현황(성과영역)의 6문항은 위와 같은 절대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상대평가를 실시한 항목들로 평가 후 평가팀 회의에서 조정하여 점수를 부과하였다. 특히 공동체규모 지표의 경우에는 1999년 이전까지 지정된 20개의 기관에 대해서만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지정된 50개의 기관은 절대평가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3점을 만점으로 하는 문항이 44문항($44\text{문항} \times 3\text{점} = 132\text{점}$), 2점을 만점으로 하는 문항이 4문항($4\text{문항} \times 2\text{점} = 8\text{점}$), 200% 가중치 문항이 3문항($3\text{문항} \times 6\text{점} = 18\text{점}$), 300%가중치 문항이 1문항($1\text{문항} \times 9\text{점} = 9\text{점}$)으로 총 167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영역별로 보면 계획영역이 54점, 집행과정 영역이 29점, 성과영역이 84점이 부여되었다. 167점 만점에 평가위원들이 현장평가 이후 작성한 현장평가소견서에서 직원이 직률, 지역특성, 기관장특성, 부업장 실적 등을 반영하여 5%를, 자활공동체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자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자활공동체 노력정도에 5%를 부여하여 전체총점의 10%, 즉 16.7점을 가산하여 총 183.7점을 최종 만점으로 하였다.

〈表 2-2〉 自活後見機關 評價體系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지표수 (n=52)	
계획영역 (17)	사업계획 및 욕구과약 (11)	지역별 사업계획의 구체성	5	
		기관특성별 사업계획의 적합성	4	
		대상자 선정 및 욕구 적절성	2	
	외부환경 및 자원연계 (6)	외부자원동원의 적절성	6	
집행과정 영역 (11)	조직체계 (7)	조직의 체계성 및 관리의 적절성	5	
		인력규모	2	
	재정운영 (4)	재원의 적절성	4	
성과영역 (24)	투입성과 (5)	예산집행실적	1	
		사업별대상자 참여실적	2	
		사례관리실적	2	
	산출 성과 (15)	자활공동체 (9)	실적	3
			지역사회환류정도	1
			사업추진의 현실적합성	3
			경영기술	1
			공동체운영구조	1
		자활근로 (5)	교육 및 공동체조직을 위한 활동	2
			지역사회환류정도	1
			사업수행과정	2
		기타특화사업(1)	특화사업수행	1
	결과성과 (4)	상위프로그램 전환실적	1	
		자활성공실적	3	

그리고 평가지표 및 체계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위촉한 「자활사업자문·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공식·비공식적인 민간 전문가·현장실무자들-관장, 실장, 실무자별-과의 6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최종적으로 공청회 및 자활후견기

관협회 주관의 자활평가대상기관 실무자 교육을 통하여 전체 의견을 조율·수정하여 확정하였다.

확정된 지표를 가지고 70개 자활후견기관의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각 자활후견기관에서 평가의 목적과 의의를 인식하고 지표를 가지고 자체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및 구체적인 질문 등에 관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자활후견기관 협회 홈페이지에 Q&A를 게시하여 실무자들이 보다 쉽게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第 3 節 評價委員

자활후견기관 평가위원은 전체 12개조 21명으로 평가위원 각 팀은 학계전문가 1인과 보건복지부 자활지원단 공무원 1인 등 2인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평가위원 21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및 결과판정, 참여 대상자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을 통해 각 항목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각 평가팀 간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평가 이후에 평가위원 회의를 2회 개최하여 평가점수 책정에 문제가 되는 문항에 대한 조정과 토의를 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현장평가 소견서 반영도, 자활공동체 부분, 기타 상대평가영역에 대한 배점결정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결정하였다.

第 3 章 自活後見機關 評價結果 分析

第 1 節 總點 및 評價領域別 點數

2000년 이전에 설립된 20개의 자활후견기관과 2000년에 설립된 50개의 자활후견기관을 각각 나누어 영역별 기술통계를 <表 3-1>과 <表 3-3>에서 제시하고 있다. 각 영역별로 4개의 가중치 문항(200% 혹은 300%)을 포함하여 계획영역이 54점, 집행영역이 29점, 성과영역이 84점 만점으로 총 167점에 현장평가소견서를 10%반영하여 183.7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다.

2000년도 이전에 설립된 20개의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각 영역별 최소, 최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계획영역은 54점 만점에 최소 41, 최대 54, 평균이 48.95, 표준편차가 3.886이며 <表 3-3>의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살펴보면, 최소 76, 최대 100, 평균 90.65, 표준편차 7.197로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집행과정 영역은 29점 만점에 최소 18, 최대 29, 평균 24.90, 표준편차가 2.9이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최소 62, 최대 100, 평균 85.86, 표준편차 10.0으로 역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성과영역에 있어서는 84점 만점에 최소 25, 최대 73, 평균 47.9, 표준편차 16.556,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최소 30, 최대 87, 평균 57.02, 표준편차 19.709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와 높은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이 아직 초기단계로써 성과가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자활공동체 문항이 27점 만점에 평균 8.6, 표준편차 10.928, 100점 환산점수로 평균 31.85, 표준편차

40.472로 자활공동체를 인정받지 못한 기관들이 자활공동체 항목 전체에 점수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낮은 평균과 높은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表 3-1〉 2000年 以前에 設立된 20個 自活後見機關 記述統計値

	만점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계획영역(17문항)	54	41	54	48.95	3.886
사업계획 및 욕구파악(11문항)	33	23	33	29.80	2.876
외부환경 및 자원연계(6문항)1)	21	14	21	19.15	1.785
집행과정 영역(11문항)	29	18	29	24.90	2.9
조직체계(7문항)2)	17	12	17	15.35	1.309
재정운영(4문항)	12	4	12	9.55	2.585
성과영역(24문항)	84	25	73	47.90	16.556
투입성과(5문항)	15	5	15	11.20	2.262
산출성과(15항목)	48	15	42	26.30	11.003
- 자활공동체(9문항)	27	0	24	8.60	10.928
- 자활근로(5문항)	15	9	15	12.90	1.518
- 기타 특화사업(1문항)3)	6	2	6	4.8	1.196
결과성과(4문항)4)	21	1	20	10.40	4.706
총점	167	86	149	121.75	19.339
현장평가소견서	16.7	1.67	16.7	9.27	4.676
최종총점 (현장평가소견서 포함)	183.7	93	157	131.02	18.875

註: 1) 200% 가중치 1항목 포함

2) 2점만점 4항목 포함

3) 200% 가중치 1항목 포함

4) 200% 가중치 1항목, 300% 가중치 1항목 포함

총점은 167점을 만점으로 하였을 때, 최저 86, 최고 149, 평균 121.75, 표준편차가 19.339이며, 현장평가소견서가 최저 1.67, 최고

16.7, 평균 9.27, 표준편차 4.676으로 총점에 이를 합산하여 183.7점을 만점으로 하였을 때는 최저 93, 최고 157, 평균 131.02, 표준편차 18.875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점으로 살펴보면 총점이 최소 51.50, 최대 89.22, 평균 72.90, 표준편차 11.580이며 현장평가 소견서 점수를 10% 포함한 최종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최저 50.45, 최고 85.66, 평균 71.32, 표준편차 10.275로 나타나 대부분의 자활후견기관이 최저수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表 3-2〉 2000年 以前에 設立된 20個 自活後見機關 換算點數

	만점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계획영역(17문항)		76	100	90.65	7.197
사업계획 및 욕구파악(11문항)	100	70	100	90.30	8.716
외부환경 및 자원연계(6문항) ¹⁾		67	100	91.19	8.501
집행과정 영역(11문항)		62	100	85.86	10.000
조직체계(7문항) ²⁾	100	71	100	90.29	7.699
재정운영(4문항)		33	100	79.58	21.541
성과영역(24문항)		30	87	57.02	19.709
투입성과(5문항)		33	100	74.67	15.079
산출성과(15항목)		31	88	54.79	22.923
- 자활공동체(9문항)	100	0	89	31.85	40.472
- 자활근로(5문항)		60	100	86.00	10.122
- 기타 특화사업(1문항) ³⁾		33	100	80.00	19.941
결과성과(4문항) ⁴⁾		5	95	49.52	22.410
총점	100	51.50	89.22	72.90	11.580
현장평가소견서	100	10	100	55.50	27.999
최종총점 (현장평가소견서 포함)	100	50.45	85.66	71.32	10.275

註: 1) 200% 가중치 1항목 포함

2) 2점 만점 4항목 포함

3) 200% 가중치 1항목 포함

4) 200% 가중치 1항목, 300% 가중치 1항목 포함

전체적으로 계획영역 중의 외부환경 및 자원연계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계획영역의 사업계획 및 욕구과약, 집행과정 영역의 조직체계가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성과영역의 자활공동체, 결과성과가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이 사업계획 및 욕구과약, 자원연계 등의 계획영역과 조직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아직까지 결과성과와 공동체 형성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에 설립된 50개의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각 영역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면(表 3-3 참조), 계획영역이 54점 만점에 최소 30, 최대 53, 평균 46.88, 표준편차 4.947로 나타났으며, <表 3-4>에서와 같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최소 56, 최대 98, 평균 86.81, 표준편차 9.162로 나타났다.

집행과정 영역은 29점 만점에 최소 17, 최대 29, 평균 23.96, 표준편차가 2.948,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소 59, 최대 100, 평균 82.62, 표준편차 10.166으로 2000년 이전에 설립된 20개의 기관에 비해서는 평균점수가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계획영역, 집행과정 영역이 각각 86.81, 82.61로 전체적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성과영역은 84점 만점에 최소 20, 최대 75, 평균 44.28, 표준편차 14.615이었으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최소 24, 최대 89, 평균 52.71, 표준편차 17.399로 2000년 이전의 기관과 마찬가지로 낮은 평균과 높은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총점은 167점을 만점으로 하였을 때, 최소 70, 최대 150, 평균 115.12, 표준편차 17.677이며, 현장평가소견서 점수가 최소 1.67, 최대 16.7, 평균 8.55, 표준편차 4.127로 이를 가산하여 183.7점을 만점으로 하였을 때는 최소 73, 최대 157, 평균 123.67, 표준편차 17.187을 나타내어 2000년 이전에 설립된 기관보다 전체적으로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총점이 최소 41.92, 최대 89.82, 평균 68.93, 표준편차 10.585이며 현장평가소견서가 최소 10, 최대 100, 평균 51.20, 표준편차 24.714로 이를 가산한 최종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최소 39.92, 최대 85.29, 평균 67.32, 표준편차 9.356으로 평가되었다.

〈表 3-3〉 2000년에 設立된 50個 自活後見機關 記述統計値

	만점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계획영역(17문항)	54	30	53	46.88	4.947
사업계획 및 욕구파악(11문항)	33	16	33	28.20	3.597
외부환경 및 자원연계(6문항) ¹⁾	21	13	21	18.68	1.963
집행과정 영역(11문항)	29	17	29	23.96	2.948
조직체계(7문항) ²⁾	17	10	17	14.78	1.730
재정운영(4문항)	12	5	12	9.18	1.987
성과영역(24문항)	84	20	76	46.36	14.358
투입성과(5문항)	15	5	15	10.82	2.037
산출성과(15항목)	48	12	44	24.14	9.433
- 자활공동체(9문항)	27	0	24	7.14	10.128
- 자활근로(5문항)	15	0	15	12.60	3.123
- 기타 특화사업(1문항) ³⁾	6	0	6	4.4	1.666
결과성과(4문항) ⁴⁾	21	0	21	9.32	5.505
총점	167	70	150	115.12	17.677
현장평가소견서	16.7	1.67	16.7	8.55	4.127
최종총점 (현장평가소견서 포함)	183.7	73	157	123.67	17.187

註: 1) 200% 가중치 1항목 포함

2) 2점 만점 4항목 포함

3) 200% 가중치 1항목 포함

4) 200% 가중치 1항목, 300% 가중치 1항목 포함

〈表 3-4〉 2000년에 設立된 50個 自活後見機關 換算點數

	만점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계획영역(17문항)		56	98	86.81	9.162
사업계획 및 욕구과약(11문항)	100	48	100	85.45	10.900
외부환경 및 자원연계(6문항) ¹⁾		62	100	88.95	9.349
집행과정 영역(11문항)		59	100	82.62	10.166
조직체계(7문항) ²⁾	100	59	100	86.94	10.174
재정운영(4문항)		42	100	76.50	16.555
성과영역(24문항)		24	89	52.71	17.399
투입성과(5문항)		33	100	72.13	13.582
산출성과(15항목)		25	92	50.29	19.652
- 자활공동체(9문항)	100	0	89	26.44	37.510
- 자활근로(5문항)		0	100	84.00	20.822
- 기타 특화사업(1문항) ³⁾		0	100	73.33	27.766
결과성과(4문항) ⁴⁾		0	100	44.38	26.214
총점	100	41.92	89.82	68.93	10.585
현장평가소견서	100	10	100	51.20	24.714
최종총점 (현장평가소견서 10% 포함)	100	39.92	85.29	67.32	9.356

註: 1) 200% 가중치 1항목 포함

2) 2점 만점 4항목 포함

3) 200% 가중치 1항목 포함

4) 200% 가중치 1항목, 300% 가중치 1항목 포함

전체적으로 2000년 이전의 기관과 마찬가지로 계획영역 중의 외부환경 및 자원연계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획영역의 사업계획 및 욕구과약, 집행과정 영역의 조직체계가 높은 점수를, 성과영역의 자활공동체, 결과성과가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第 2 節 評價領域別 機關分布

1. 計劃領域

가. 事業計劃 및 欲求把握

“계획영역”은 ‘사업계획 및 욕구파악’과 ‘외부환경 및 자원연계’ 두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계획 및 욕구파악’항목은 다시 지역별 사업계획의 구체성, 기관특성별 사업계획의 적합성, 대상자 선정 및 욕구적절성의 세 개의 지표로 나뉘어진다. 먼저 지역별 사업계획의 구체성 지표 중 시설의 규모 문항을 보면, <表 3-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팀웍 작업에 의한 계획서 작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관이 2000년 이전에 설립된 20개의 기관(이후 ‘20개 기관’으로 표기)은 85.0%, 2000년 이후에 설립된 50개의 기관(이후 ‘50개 기관’으로 표기)은 68.0%으로 나타났으며, 20개 기관 중 10%, 50개 기관 중 32%의 기관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직의 규모 및 체계 문항에서는 인력의 규모가 적절하고 운영주체의 조직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3점을 받은 기관이 20개 기관은 95.0%, 50개 기관은 88.0%로 대부분의 기관이 인력과 운영주체를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그 외의 20개 기관 중 5%, 50개 기관 중 12%가 다소 부족한 것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활지원사업이 아직 역사적으로 일천하고 제도상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빨리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운영주체의 조직체계나 인력의 질(man power quality)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며, 후견기관의 선정과정에서 비교적 적절하게 기관선정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력배치 문항에 있어서 인력선발기준 및 전형방법의 명시화와 직

원채용의 공개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20개 기관 중 75.0%, 50개 기관 중 64.0%가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대체적으로 갖추고 있으나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20개 기관은 25.0%, 50개 기관은 26.0%로 나타났다.

〈表 3-5〉 計劃領域 事業計劃 및 欲求把握 項目의 頻度分布(1)

(단위: 개소, %)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평가기준	평가 점수	20개기관	50개기관
				N(비율)	N(비율)
지역별 사업계획의 구체성 (5)	사업의 규모	·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예산) · 예산서(보조금 및 차부담) · 사업계획서 작성과정 · 팀웍 작업정도	3	17(85.0)	34(68.0)
			2	2(10.0)	16(32.0)
			1	1(5.0)	-
			0	-	-
	조직의 규모 및 체계	· 인력규모 · 운영주체의 조직	3	19(95.0)	44(88.0)
			2	1(5.0)	6(12.0)
			1	-	-
			0	-	-
	인력 배치	· 인력선발기준 및 전형방법 · 직원채용의 공개성과 합리성	3	15(75.0)	32(64.0)
			2	5(25.0)	13(26.0)
			1	-	5(10.0)
			0	-	-
	사업 목표	· 사업목표설정과 기획의 구체성 · 사업목표에 대한 공유 및 인지 정도	3	17(85.0)	34(68.0)
			2	1(5.0)	15(30.0)
			1	2(10.0)	1(2.0)
0			-	-	
중장기 발전 계획 및 비전	· 발전비전의 구체성 · 직원의 직무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계획 · 단계별 행동계획 수립여부 · 지역사회주민의 사업 참여계획	3	6(30.0)	9(18.0)	
		2	10(50.0)	33(66.0)	
		1	4(20.0)	8(16.0)	
		0	-	-	

사업목표 문항에서는 사업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공유와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20개 기관 중 85.0%, 50개 기관 중 68.0%가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개 기관의 5%, 50개 기관의 30%가 약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발전계획 및 비전 문항에서는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 비전, 단계별 행동계획, 지역사회주민의 사업참여계획, 직원의 직무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개 기관의 30%, 50개 기관의 18% 기관만이 이러한 항목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개 기관 중 50%, 50개 기관 중 66%는 일부만을 갖추고 있으며, 20개 기관의 20%, 50개 기관의 16%는 일부 갖추고 있으나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활후견기관이 사업계획 및 목표는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발전비전과 단계별 행동계획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다소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기관특성별 사업계획의 적합성에 있어 기관특성별 사업 문항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과 기관의 주요 핵심사업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평가받은 기관이 20개 기관의 90%, 50개 기관의 7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20개 기관 중 10%, 50개 기관 중 26%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에서는 사업계획의 실현을 위한 자원동원계획과 지역사회 조직 및 네트워크, 지역자원 현황조사, 재정 확보 계획 등의 여부에 의해 평가되었다. 20개 기관 중 65%, 50개 기관 중 52%가 3점으로 평가받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갖추고 있어 2점을 받은 기관이 20개 기관의 20%, 50개 기관의 42%, 미흡하다고 평가되어 1점을 받은 기관이 20개 기관의 15%, 50개 기관의 6%로 나타났다.

세부추진 일정의 적절성 문항은 사업추진에 대한 일정 수립정도,

인력 현황과 예산 확보에 의하여 평가되었으며 20개 기관 중 75%, 20개 기관 중 46%가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20개 기관의 25%, 50개 기관의 46%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20개 기관의 0%, 50개 기관의 8%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3-6〉 計劃領域의 事業計劃 및 欲求把握 項目의 頻度分布(2)

(단위: 개소, %)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평가기준	평가 점수	20개기관	50개기관
				N(비율)	N(비율)
기관 특성별 사업 계획 적합성 (4)	기관 특성별 사업	· 지역사회특성의 사업 계획반영여부 · 기관의 주요 핵심사업	3	18(90.0)	35(70.0)
			2	2(10.0)	13(26.0)
			1	-	2(4.0)
			0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 사업계획실행을 위한 자원동원계획 · 지역사회조직 및 네트워크 · 지역자원현황조사정도 · 재정확보계획	3	13(65.0)	26(52.0)
			2	4(20.0)	21(42.0)
			1	3(15.0)	3(6.0)
			0	-	-
	세부추진 일정의 적절성	· 사업추진 일정 수립정도 · 인력(상근,비상근,자원봉사 등) 현황 · 예산확보 (외부자원포함)	3	15(75.0)	23(46.0)
			2	5(25.0)	23(46.0)
			1	-	4(8.0)
			0	-	-
사업목적의 명확성	· 목적의 구체성과 합리성 정도	3	17(85.0)	36(72.0)	
		2	3(15.0)	11(22.0)	
		1	-	3(6.0)	
		0	-	-	
대상자 선 정 및 욕 구 적절성 (2)	사업참여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에 대한 참여자 선정 적절성 · 선정기준의 적합성	3	16(80.0)	34(68.0)
			2	4(20.0)	14(28.0)
			1	-	2(4.0)
			0	-	-
	참여대상자 만족도 조사	· 사업참여자에 대한 사업설명 횟수	3	13(65.0)	33(66.0)
			2	7(35.0)	15(30.0)
			1	-	2(4.0)
			0	-	-

사업목적의 명확성에 있어서 목적의 구체성과 합리성을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와 사업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평가한 결과 기준에 적절하다고 평가된 기관이 20개 기관 중 85%, 50개 기관 중 72%로 나타났으며, 20개 기관의 15%, 50개 기관의 22%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 및 욕구과약 중 세 번째 지표인 대상자선정 및 욕구적절성에 있어서 사업참여 대상자 선정기준 문항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절하다고 평가된 기관이 20개 기관의 80%, 50개 기관의 68%,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이 20개 기관의 20%, 50개 기관의 28%로 나타났다.

참여대상자 만족도 조사 문항에서는 사업참여자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직접 인터뷰를 통하여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20개 기관의 65%, 50개 기관의 66%가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20개 기관의 35%, 50개 기관의 30%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外部環境 및 資源連繫

계획영역의 두 번째 항목인 외부환경 및 자원연계는 외부자원동원의 적절성과 관련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表 3-7>에 의하면, 먼저 수급자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조 문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노력과 업무협조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20개 기관, 50개 기관 모두 90%의 기관들이 업무협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소 부족한 기관이 20개 기관 중 5%, 50개 기관 중 8%로, 미흡한 기관이 20개 기관 중 5%, 20개 기관 중 2%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및 업무협조 문항에서는 지자체 사업지원 내역과 자활협의체에 참여정도, 2001년도 해당지역의 자활지원계획

수립시 참여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20개 기관 중 90%, 50개 기관 중 74%의 기관이 사업지원 및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개 기관의 5%, 50개 기관의 22%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20개 기관의 5%, 50개 기관의 2%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노동조합, 사회복지기관 및 보건의료기관, 기타관련 NGO 등 지역자원 협력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은 가중치 문항으로 3, 2, 1점의 배점에 200%의 가중치로 각각 6, 4, 2점이 부가되었다. 타기관들과의 관계형성 노력과 연대사업 경험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20개 기관의 85%, 50개 기관의 76%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개 기관의 10%, 50개 기관의 22%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20개 기관의 5%, 50개 기관의 2%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주민 자원동원 및 협력정도 문항은 사업참여자의 송영서비스, 사업장 이동방법, 사업소 접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20개 기관 중 70%, 50개 기관 중 86%가 적절한 것으로, 20개 기관의 30%, 50개 기관의 14%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후견기관과의 협력체계는 지역 네트워크 형성여부와 연대사업실적 여부에 따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연대사업실적이 2개 이상인 경우가 3점으로 65%, 62%를 차지하였으며 네트워크가 있고 연대사업실적이 1개인 경우가 2점으로 25%, 24%를, 네트워크가 있고 연대사업이 없는 경우가 1점으로 10%, 12%를, 네트워크와 연대사업이 둘다 없는 경우 0점으로 2000년에 시작된 기관 중 2%가 이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3-7〉 計劃領域의 外部環境 및 資源連繫 項目 頻度分布
(단위: 개소, %)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평가기준	평가 점수	20개기관 N(비율)	50개기관 N(비율)
외 부 자 원 동 원의 적 절 성 (6)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조	· 지자체 협력을 위한 노력정도 · 조건부 수급자의뢰 및 차상위계층 의뢰 등의 업무협조정도	3 2 1 0	18(90.0) 1(5.0) 1(5.0) -	45(90.0) 4(8.0) 1(2.0)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및 업무협조	· 지자체 사업지원 내역 · 자활협의체 참여 정도 · 2001년도 지역자활지원 계획 수립시 참여 유무	3 2 1 0	18(90.0) 1(5.0) 1(5.0) -	37(74.0) 11(22.0) 1(2.0) 1(2.0)
	기업, 노동조합, 사회복지기관 및 보건의료 기관, 기타 관련 NGO 등 지역자원 협력 정도	· 지역사회 타기관 등과의 관계형성 노력 · 연대사업 경험유무 ※ 가중치 200%	6 4 2 0	17(85.0) 2(10.0) 1(5.0) -	38(76.0) 11(22.0) 1(2.0) -
	지역주민 자원동원 및 협력정도	· 지역주민과 관계형성을 위한 접근방식(설명회, 교육 등) · 지역주민의 기관운영 참여방 법 · 지역주민의 후견기관 인지도 · 직원의 지역사회 각종위원회 또는 주민조직에 참여정도	3 2 1 0	13(65.0) 6(30.0) 1(5.0) -	24(48.0) 18(36.0) 8(16.0) -
	참여자의 접근성 정도	· 사업참여자의 송영 서비스 · 사업참여자의 사업장 이동방법 · 사업소 접근성	3 2 1 0	14(70.0) 6(30.0) - -	43(86.0) 7(14.0) - -
	타후견기관과의 협력체계	· 사업계획 및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정도 · 협력에 의한 사업실적 여부 ※ 상대평가 실시	3 2 1 0	13(65.0) 5(25.0) 2(10.0) -	31(62.0) 12(24.0) 6(12.0) 1(2.0)

2. 執行過程 領域

가. 組織體系

“집행과정 영역”은 ‘조직체계’, ‘재정운영’ 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조직체계’는 다시 조직의 체계성 및 관리의 적절성, 인력 규모 2개의 지표로 되어 있는데, 조직의 체계성 및 관리의 적절성은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직체계성 및 관리의 적절성에서 운영규정의 적절성 문항에서는 20개 기관의 90%, 50개 기관의 84%가 운영규정과 운영세칙이 작성되어 있고 작성과정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개 기관의 10%, 50개 기관의 16%만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무분장의 명확성 문항에서는 업무분장표와 위임전결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관이 20개 기관 중 55%, 50개 기관 중 52%, 업무분장표와 위임전결 중 하나만 갖추고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기관이 20개 기관 중 45%, 20개 기관 중 48%로 평가되어 조직체계 항목의 다른 문항에 비하여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설관리 및 안전점검 상태는 안전점검정도와 안전장비구비 여부에 있어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장비도 갖추고 있는 기관이 20개 기관 중 70%, 20개 기관 중 86%이며, 보완이 필요한 기관이 20개 기관 중 30%, 20개 기관 중 14%로 나타났다.

〈表 3-8〉 執行過程 領域의 組織體系 項目 頻度分布

(단위: 개소, %)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평가기준	평가 점수	20개기관	50개기관
				N(비율)	N(비율)
조직의 체계성 및 관리의 적절성 (5)	운영규정의 적절성	· 운영규정 작성여부 및 작성과정	3	18(90.0)	42(84.0)
			2	2(10.0)	8(16.0)
			1	-	-
			0	-	-
	업무분장의 명확성	· 업무분장표 · 위임전결정도	2	11(55.0)	26(52.0)
			1	9(45.0)	24(48.0)
			0	-	-
	시설관리 및 안전점검 상태	· 사무실 및 사업장 안전점검정도 · 안전을 위한 장비 구비여부	2	14(70.0)	43(86.0)
			1	6(30.0)	7(14.0)
			0	-	-
시설배치 및 장비관리 상태	· 사업장 배치의 적절성 · 장비보수유지 관리정도	2	19(95.0)	49(98.0)	
		1	1(5.0)	1(2.0)	
		0	-	-	
대인, 대물 보험 가입여부	· 회계,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보험 가입 여부	2	12(60.0)	22(44.0)	
		1	8(40.0)	27(54.0)	
		0	-	1(2.0)	
인력 규모 (2)	전체참여 대상자 대비 전담인력비중	· 사업별 참여인원 및 전담인력(상근, 비상근, 자원봉사 포함)	3	15(75.0)	26(52.0)
			2	5(25.0)	21(42.0)
			1	-	3(6.0)
			0	-	-
	사업인력의 전문성과 경력	· 전문인력의 배치정도 (전문성, 경력) · 사업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여부 · 사업관련 교육훈련 여부	3	18(90.0)	36(72.0)
			2	2(10.0)	13(26.0)
			1	-	1(2.0)
			0	-	-

시설배치 및 장비관리 문항은 사업장 배치의 적절성과 장비보수 유지 및 관리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평가된 기관이 20개 기관 중 95%, 20개 기관 중 98%로 대부분의 기관이 이에 해당하였고, 20개 기관 중 5%, 20개 기관 중 2%의 기관만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인, 대물보험 가입여부 문항은 회계,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보험 가입 여부로 20개 기관의 60%, 50개 기관의 44%가 관련보험에 모두 가입해 있었고 20개 기관의 40%, 50개 기관의 54%가 보험가입이 미흡하였다.

조직체계 중 인력규모 지표에 있어 전체참여 대상자 대비 전담인력 비중 문항에서는 20개 기관의 75%, 50개 기관의 52%가 인력규모가 적절한 것으로, 20개 기관의 25%, 50개 기관의 42%가 인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3-9>에서 인력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이전의 20개 기관은 평균 6.7명, 2000년 이후의 50개 기관은 평균 6.48명이며 6명, 7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3-9〉 自活後見機關 專擔人力 現況

명수	2000년 이전 20개기관	2000년 이후 50개기관
	개소(%)	개소(%)
5명 이하	4 (20.0)	7 (14.0)
6명	5 (25.0)	22 (44.0)
7명	5 (25.0)	13 (26.0)
8명	4 (20.0)	6 (12.0)
9명 이상	2 (10.0)	2 (4.0)
계	20 (100.0)	50 (100.0)
평균/표준편차	6.70 / 1.380	6.48 / 1.015

사업인력의 전문성과 경력 문항에서는 20개 기관의 90%, 50개 기관의 72%가 전문성 및 경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개 기관의 10%, 50개 기관의 26%가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 자격증 소지 여부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인력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현황을 <表 3-10>에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인력이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기관을 제외하고 2000년 이전의 20개 기관 중 10개의 기관과 2000년에 설립된 50개 기관 중 28개의 기관을 살펴보면, 각각 2.80명, 2.61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었으며 2000년 이전의 기관에서는 1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000년에 설립된 기관은 2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외에도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사, 보육교사, 상담심리사, 간호조무사, 평생교육사, 사서, 정보처리기사, 조리사 등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다.

<表 3-10> 自活後見機關 社會福祉士 資格證 現況

명수	2000년 이전 20개기관	2000년 이후 50개기관
	개소(%)	개소(%)
1명	4 (40.0)	6 (21.4)
2명	3 (30.0)	10 (35.7)
3명	-	7 (25.0)
4명 이상	3 (30.0)	5 (17.9)
계	10 (100.0)	28 (100.0)
평균/표준편차	2.80 / 2.30	2.61 / 1.641

나. 財政運營

집행과정 영역의 두 번째 항목인 재정운영에 있어서 재원의 적절성 지표 중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적절성 문항에서는 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정도, 재정관련 장부구비, 예산 중 인건비, 사업비, 기관운영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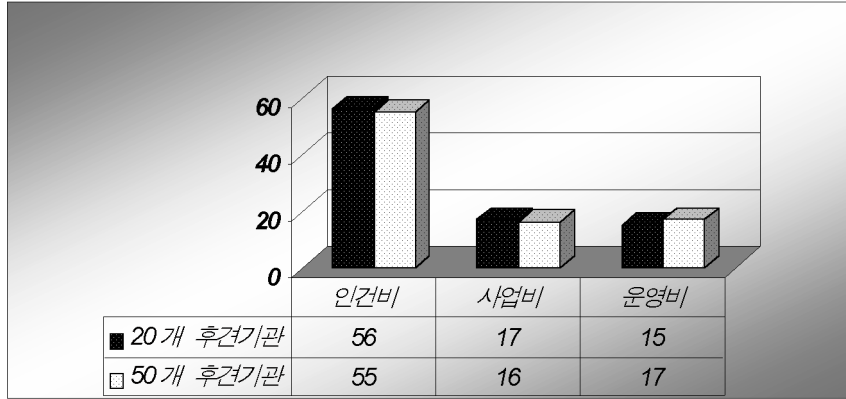
비율이 균형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20개 기관 중 70%, 50개 기관 중 60%의 기관이 예산 편성이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개 기관의 25%, 50개 기관의 40%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2000년 이전에 설립된 기관 중 5%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3-11>에서와 같이 전체 예산 중 인건비, 사업비, 기관운영비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 이전 기관의 경우 평균 인건비 비율이 56.45%, 사업비 비율이 16.85%, 운영비 비율이 15.24%로 나타났으며, 2000년 이후 기관의 경우 인건비 비율이 55.23%, 사업비 비율이 16.12%, 운영비 비율이 16.49%로 나타났다.

<表 3-11> 自活後見機關 豫算 中 人件費, 事業費, 機關運營費 比率
(단위: %)

	2000년 이전 20개기관			2000년 이후 50개기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최소	27.00	3.70	5.00	30.00	0.73	5.00
최대	68.00	55.00	28.00	74.00	57.00	44.00
평균	56.45	16.85	15.24	55.23	16.12	16.49
표준편차	10.50	11.51	6.06	8.79	11.86	7.38

[그림 3-1] 自活後見機關 豫算 中 人件費, 事業費, 機關運營費 比率



운영주체의 지원정도 문항에 있어서는 현금, 현물 지원을 현금화하여 1000만원 이상일 경우가 20개 기관 중 50%, 50개 기관 중 52%가 이에 해당하며, 500~1000만원일 경우가 20개 기관 중 15%, 50개 기관 중 22%, 100~500만원일 경우가 20개 기관 중 15%, 50개 기관 중 16%, 100만원 이하일 경우가 20개 기관 중 20%, 50개 기관 중 10%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무실과 작업실 공간확보를 위한 임대료, 보증금, 공간무료사용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아 2000년 이전에 설립된 20개의 기관 중 9개의 기관이, 2000년에 설립된 50개의 기관 중 23개의 기관이 장소사용과 관련된 지원을 하였다. 그 외의 현물지원으로 가장 많은 것이 차량, 컴퓨터 지원이었으며, 기자재, 물품, 사무용품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소 및 차량, 컴퓨터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운영주체의 지원을 현금화하여 <表 3-12>에서 살펴보면, 장소, 차량 등의 현물만을 지원한 곳을 제외하고 2000년 이전의 20개 기관 중 15개의 기관의 평균 약 739만원, 2000년에 설립된 50개의 기관 중 27개 기관의 평균은 약 672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전혀 지원이 없는 기관이 있는 반면, 최대 4000만원의 지

원을 한 기관도 있어 표준편차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장소, 차량, 컴퓨터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100~500만원의 지원을 한 곳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3-12〉 運營主體 支援金 現況

(단위: 천원, %)

금액	2000년 이전 20개기관	2000년 이후 50개기관
	개소(%)	개소(%)
없음	3 (20.1)	5 (18.5)
0~1,000 미만	1 (6.7)	1 (3.7)
1,000~5,000 미만	4 (26.7)	8 (29.6)
5,000~10,000 미만	2 (13.4)	7 (25.9)
10,000~15,000 미만	2 (13.4)	3 (11.1)
15,000 이상	3 (20.1)	3 (11.1)
계	15 (100.0)	27 (100.0)
평균/표준편차	7392.80 / 8056.78	6718.33 / 9414.22

민·관 재원확보 및 관리상태 문항은 외부단체로부터의 지원과 외부 프로젝트 지원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20개 기관의 65%, 50개 기관의 38%가 재원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개 기관의 15%, 50개 기관의 28%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20개 기관의 5%, 50개 기관의 20%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개 기관의 15%, 50개 기관의 14%가 외부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지출의 적정성 문항에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지출의 적정성, 지자체로부터의 예산집행관련 지적사항 등을 기준으로 모두 잘 이루어진 기관이 20개 기관 중 70%, 50개 기관 중 52%로 나타났고, 다소 부족한 기관이 20개 기관의 25%, 50개 기관의 48%로 각각 평가되었다.

<表 3-13> 執行過程 領域의 財政運營 項目 頻度分布

(단위: 개소, %)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평가기준	평가 점수	20개기관	50개기관
				N(비율)	N(비율)
재원의 적절성 (4)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적절성	· 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 정도 · 재정관련 장부구비정도 · 예산 중 인건비, 사업비, 기관운영비의 비율정도	3	14(70.0)	30(60.0)
			2	5(25.0)	20(40.0)
			1	1(5.0)	-
			0	-	-
재원의 적절성 (4)	운영주체의 지원정도	· 전체 세입에 대한 운영 주체의 현금, 현물 지원정도	3	10(50.0)	26(52.0)
			2	3(15.0)	11(22.0)
			1	3(15.0)	8(16.0)
			0	4(20.0)	5(10.0)
재원의 적절성 (4)	민,관재원 확보 및 관리상태	· 민간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의 지원금정도 · 외부 프로젝트 지원정도	3	13(65.0)	19(38.0)
			2	3(15.0)	14(28.0)
			1	1(5.0)	10(20.0)
			0	3(15.0)	7(14.0)
예산지출의 적정성	예산지출의 적정성	· 예산편성에 따른 지출의 적정성 · 지자체로부터의 예산집행 관련 지적사항 · 결산에 따른 예산계획 수립의 적절성 · 결재는 잘 이루어졌는가 (사전, 사후결재비율)	3	14(70.0)	26(52.0)
			2	5(25.0)	24(48.0)
			1	1(5.0)	-
			0	-	-

3. 成果領域

가. 投入成科

“성과영역”은 크게 ‘투입성과’, ‘산출성과’, ‘결과성과’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투입성과를 살펴보면 <表 3-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예산집행실적 지표는 프로그램별 예산대비 집행실적 문항으로 사업별 집행을 적절성을 평가하여 20개의 기관 및 50개의 기관 중 각각 70%의 기관이 예산집행을 적절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개 기관의 20%, 50개 기관의 24%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20개 기관의 10%, 50개 기관의 6%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대상자 참여실적 지표에서는 전체참여자 규모에서 20개 기관의 70%, 50개 기관의 62%가 3점을, 20개 기관의 30%, 50개 기관의 32%가 2점을 2000년에 설립된 50개의 기관 중 6%가 1점으로 평가되었다.

자활공동체사업 참여자비율은 전체사업 참여 중 자활공동체 참여비율로써 공동체가 없는 기관들이 20개 기관 중 60%, 50개 기관 중 6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를 제외하고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상위25%, 중위50%, 하위25%의 비율로 평가하였다. <表 3-14>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업 참여자 중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비율이 2000년 이전의 20개 기관은 평균 8.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기관의 경우는 1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분포를 살펴보면 공동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00년 이전 20개의 기관은 전체사업 참여자 중 공동체 참여자의 비율이 1~10%인 기관이 가장 많았고, 2000년 이후의 50개 기관은 공동체 참여자의 비율이 10~30%인 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3-14〉 自活共同體 事業 參與者 比率

(단위: 개소, %)

전체사업 참여 중 자활공동체 참여비율	2000년 이전 20개기관	2000년 이후 50개기관
없음	12 (60.0)	33 (66.0)
1~10% 미만	4 (20.0)	2 (4.0)
10~30% 미만	2 (10.0)	7 (14.0)
30~50% 미만	1 (5.0)	3 (6.0)
50~70% 미만	1 (5.0)	2 (4.0)
70% 이상	0 (0.0)	3 (6.0)
계	20 (100.0)	50 (100.0)
평균/표준편차	8.25 / 16.714	13.10 / 26.397

‘투입성과’ 항목의 마지막 지표인 사례관리실적에서는 초기상담실적 및 상담일지 여부 문항에 있어서 20개 기관의 85%, 50개 기관의 64%가 상담실적과 상담일지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20개 기관의 10%, 50개 기관의 34%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20개 기관의 5%, 50개 기관의 2%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 사후관리여부 문항에서는 20개 기관 중 45%, 50개 기관 중 46%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각 40%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20개 기관 중 15%, 50개 기관 중 14%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후견기관이 초기상담과 상담일지 작성은 대부분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사례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3-15〉 成果領域의 投入成果 項目 頻度分布

(단위: 개소, %)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평가기준	평가 점수	20개기관	50개기관
				N(비율)	N(비율)
예산 집행 실적 (1)	프로그램별 예산대비 집행실적	· 사업별 결산에 따른 집행의 적절성	3	14(70.0)	35(70.0)
			2	4(20.0)	12(24.0)
			1	2(10.0)	3(6.0)
			0	-	-
사업별 대상자 참여 실적 (2)	전체참여자 규모	· 전체 참여자 대비 사업별 참여 · 상담인원 및 사업참여자 · 중도탈락정도 및 사유	3	14(70.0)	31(62.0)
			2	6(30.0)	16(32.0)
			1	-	3(6.0)
			0	-	-
	자활공동체 사업 참여자 비율	· 후건기관별 전체사업 참여 중 자활공동체 참여규모 (공동체개수, 참여자수, 수급자 수)	3	2(10.0)	4(8.0)
			2	4(20.0)	9(18.0)
			1	2(10.0)	4(8.0)
			0	12(60.0)	33(66.0)
사 관 리 실 적 (2)	초기상담실적 및 상담일지 여부	· 상담방법 및 내용 · 상담일지 작성	3	17(85.0)	32(64.0)
			2	2(10.0)	17(34.0)
			1	1(5.0)	1(2.0)
			0	-	-
	지속적 사후 관리여부	· 주기적 사후관리 정도 · 사후관리의 적정성	3	9(45.0)	23(46.0)
			2	8(40.0)	20(40.0)
			1	3(15.0)	7(14.0)
			0	-	-

나. 算出成果

‘산출성과’ 영역은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기타 특화사업으로 구분된다. 2001년 자활후건기관 자활사업실적을 살펴보면, <表 3-16>과 같다.

자활후건기관 전체 실적을 살펴보면, 2001년 11월말 현재 2000년 이전 설립한 20개소의 경우 전체 실적 평균은 71.85명이며, 이 중 차상위계층은 33.15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8.70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0

년 이후 설립한 50개소의 경우, 전체 실적 평균은 45.18명이며, 이 중 차상위계층은 11.18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4.16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적에 있어 2000년 이전 설립한 20개소의 실적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에 있어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2000년 이전 설립한 20개소의 경우 차상위계층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3-16〉 事業實績

		20개 기관				50개 기관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합계	17	156	71.85	31.471	10.00	133.00	45.18	24.921
	차상위	6	99	33.15	22.679	-	56.00	11.18	10.287
	수급자	6	100	38.70	22.933	5.00	114.00	34.16	21.187
자활 공동체	합계	3	85	32.30	21.317	-	72.00	11.94	15.229
	차상위	1	84	25.95	22.025	-	51.00	5.94	9.429
	수급자	-	29	6.35	7.748	-	59.00	6.06	10.112
자활 근로	합계	8	114	40.30	25.444	-	109.00	33.20	20.804
	차상위	1	18	7.20	5.493	-	19.00	5.24	5.000
	수급자	4	97	33.10	21.863	-	96.00	28.18	19.060

자활공동체 사업실적은 20개 기관의 경우 평균 32.30명이며, 차상위 계층은 평균 25.95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평균 6.35명이다. 50개 기관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 11.94명이며, 이 중 차상위계층은 평균 5.94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평균 6.06명으로 나타났다.

자활근로 사업실적은 20개 기관의 경우, 평균 40.30명이며, 이 중 차상위계층이 평균 7.20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평균 33.10명이다. 50개기관의 경우, 평균 33.20명이며, 이 중 차상위계층은 평균 5.24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평균 28.18명이다.

자활후견기관 사업실적에 있어 2000년 이전 설립한 20개소는 자활

공동체 참여자의 비율이 높으며, 2000년 이후 설립한 50개소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自活共同體

자활공동체는 실적, 지역사회 환류정도, 사업추진의 현실적합성, 경영기술, 공동체 운영구조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001년 9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조건부수급자가 1/3의 비율을 차지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자활공동체로 엄격하게 인정하여 2000년 이전에 설립된 20개의 기관의 경우 60%, 2000년에 설립된 50개의 기관의 경우 66%가 공동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활공동체 문항 전체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였다. 단, 2001년 9월 이후의 공동체가 설립된 경우나 공동체 노력 정도를 현장평가소견서에서 점수화하여 총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반영하였다.

산출성과 중 자활공동체 항목 9개의 지표에서는 공동체가 없어 전체 항목에서 0점을 받은 12개 기관(20개 기관 중), 33개 기관(50개 기관 중)을 제외한 8개 기관, 17개 기관을 전체로 하여 빈도분포를 <表 3-17>, <表 3-20>에 제시하였다.

자활공동체의 실적지표에서 사업계획 달성정도 문항은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과 공동체 업종개발을 위한 노력정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75.0%, 47.1%가 3점을, 12.5%, 47.1%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2점을, 12.5%, 5.9%가 미흡하여 1점으로 평가받았다.

공동체 규모는 2000년 이후에 시작된 50개의 기관은 1개의 자활공동체라도 인정될 경우 모두 3점으로 평가하여 17개 기관이 자활공동체가 인정되었고, 2000년 이전에 설립된 20개의 기관에 한하여 자활공동체가 3개 이상인 기관이 12.5%, 2개인 기관이 25.0%, 1개인 기관이 62.5%를 차지하여 1개의 자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3-17〉 成果領域의 算出成果 中 自活共同體 頻度分布

(단위: 개소, %)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평가기준	평가 점수	20개기관	50개기관
				N(비율)	N(비율)
실적 (3)	사업계획 달성정도	·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정도 · 업종개발을 위한 노력정도	3	6(75.0)	8(47.1)
			2	1(12.5)	8(47.1)
			1	1(12.5)	1(5.9)
			0	-	-
	공동체 규모	· 공동체 개소수 및 참여 인원규모	3	1(12.5)	17(100.0)
			2	2(25.0)	-
			1	5(62.5)	-
			0	-	-
	공동체 구성원 소득	· 사업에 따른 월평균급여 · 연간 수익금 규모	3	3(37.5)	5(29.4)
2			5(62.5)	7(41.2)	
1			-	4(23.5)	
0			-	1(5.9)	
지역 사회 환류 정도 (1)	지역 사회로의 환류	· 자활공동체사업의 지역사회 파급정도 · 공동체 참여경로, 방법, 내용 · 자활공동체의 지역사회 기여 정도	3	6(75.0)	7(41.2)
			2	1(12.5)	8(47.1)
			1	1(12.5)	2(1.8)
			0	-	-
사 업 추진의 현실 적합성 (3)	인력(규모) 및 사업 규모대비 현실 적합성	· 사업자등록 유무 및 대표자(주민)여부 · 사업참여 구성원 현황 (일반/차상위/수급권자)	3	2(25.0)	6(35.3)
			2	5(62.5)	9(52.9)
			1	1(12.5)	2(11.8)
			0	-	-
	후견 기관의 관리정도	· 담당직원의 업무 시간정도 · 생산물품 판매를 위한 판로개척지원 · 공동체형성을 위한 조직화 지원활동	3	6(75.0)	10(58.8)
			2	2(25.0)	7(41.2)
			1	-	-
			0	-	-
	자산, 자기자본 부채비율	· 경영의 적정성 · 자산 중 순수자활공동체 자기자본 비율정도 · 부채현황과 상환가능성	3	3(37.5)	2(11.8)
			2	3(37.5)	13(76.5)
			1	2(25.0)	2(11.8)
			0	-	-

註: 자활공동체가 없어 전체항목에서 0점을 받은 기관은 제외한 수치임.

이를 <表 3-18>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이후의 50개 기관의 경우 역시 1개의 공동체가 35.3%로 가장 많고 2개의 공동체를 운영하는 기관이 5개 기관으로 29.4%를 차지하고 있다.

<表 3-18> 自活共同體 現況

(단위: 개소,%)

자활공동체 개수	2000년 이전 20개 기관	2000년 이후 50개 기관
	개소(%)	개소(%)
1개	5 (62.5)	6 (35.3)
2개	2 (25.0)	5 (29.4)
3개	0 (0.0)	4 (23.5)
4개 이상	1 (12.5)	2 (11.8)
계	8 (100.0)	17 (100.0)

공동체 구성원 소득에서는 급여와 수익금규모로 평가하여 20개 기관의 37.5%, 50개 기관의 29.4%가 급여와 수익금이 모두 적절한 것으로, 20개 기관의 62.5%, 50개 기관의 41.2%가 구성원 소득이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2000년에 시작된 50개 기관의 23.5%가 미흡한 것으로, 5.9%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19> 自活共同體 給與와 收益金 規模 現況

(단위: 천원)

	자활 공동체 급여	
	20개 기관	50개 기관
최소값	260	0
최대값	1150	1000
평균	670.25	404.47
표준편차	276.25	289.61

자활공동체 급여의 경우 2000년 이전의 20개 기관의 경우 평균 67만원, 2000년 이후의 50개 기관의 경우 40만원으로 나타났으나 표준편차가 각각 276.25, 289.61로 기관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활공동체에 있어서의 지역사회환류 지표는 자활공동체의 지역사회 파급정도, 공동체 참여경로, 방법, 내용, 지역사회 기여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20개 기관의 75%, 50개 기관의 41.2%가 지역사회와의 환류가 원활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개 기관의 12.5%, 50개 기관의 47.1%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20개 기관의 12.5%, 50개 기관의 11.8%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추진의 현실적합성 지표에서 인력 및 사업규모대비 현실 적합성 문항은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 여부, 사업참여 구성원 현황에 의해 20개 기관의 25%, 50개 기관의 35.3%가 사업자 등록과 1/3이상의 수급권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20개 기관의 62.5%, 50개 기관의 52.9%는 둘 중의 한가지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20개 기관의 12.5%, 50개 기관의 11.8%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견기관의 관리정도에서는 20개 기관의 75%, 50개 기관의 58.8%가 담당직원의 업무시간이 적절하고, 생산물품 판매를 위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직화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20개 기관의 25%, 50개 기관의 41.2%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자기자본 부채비율에서는 20개 기관의 37.5%, 50개 기관의 11.8%가 자본과 부채비율이 적절한 것으로, 20개 기관의 37.5%, 50개 기관의 76.5%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20개 기관의 25%, 50개 기관의 11.8%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문항에 비해 2000년 이후의 후견기관과 2000년 이전에 시작된 후견기관과의 차이가 크게 나

타나고 있어 아직까지 자활공동체가 불안정하여 경영의 적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영기술에 있어서는 경영자문 연계정도 및 경영관련 교육실적으로 전문적인 경영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는 기관이 20개 기관 중 50%, 50개 기관 중 29.4%로, 내용이나 실적이 다소 부족한 기관이 20개 기관 중 50%, 50개 기관 중 64.7%로, 실적이 있으나 매우 미흡한 기관이 50개의 기관 중 5.9%로 평가되어 자활공동체 운영을 위한 경영기술에 대한 연계 및 교육이 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 운영구조에 있어서는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 공개성 문항으로 정관 또는 운영규정 제정여부와 회의방식 및 내용 등에 의하여 20개 기관 중 87.5%, 50개 기관 중 41.2%의 기관이 의사결정구조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개 기관 중 12.5%, 50개 기관 중 47.1%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50개의 기관 중 11.8%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3-20〉 成果領域의 算出成果 中 自活共同體 頻度分布

(단위: 개소, %)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평가기준	평가 점수	20개기관	50개기관
				N(비율)	N(비율)
경영기술 (1)	경영자문 연계정도 및 경영관련 교육실적	· 경영자문 연계정도 · 대상자 교육내용 및 횟수	3	4(50.0)	5(29.4)
			2	4(50.0)	11(64.7)
			1	-	1(5.9)
			0	-	-
공동체 운영구조 (1)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공개성	· 정관 또는 운영규정 제정여부 · 회의방식과 내용	3	7(87.5)	7(41.2)
			2	1(12.5)	8(47.1)
			1	-	2(11.8)
			0	-	-

註: 자활공동체가 없어 전체항목에서 0점을 받은 기관은 제외한 수치임.

전체적으로 자활공동체 문항에서는 2000년 이전에 시작된 기관과 2000년 이후의 기관의 차이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 2000년 이전에 시작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공동체가 보다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自活動勞

자활근로에 있어서 교육 및 공동체 조직을 위한 활동을 20개 기관과 50개 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육실적 및 교육참여인원은 20개 기관의 95%, 50개 기관의 76%가 교육을 적절히 시키고 있는 것으로, 20개 기관의 5%, 50개 기관의 20%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은 기관이 2000년 이전에 설립된 20개소의 경우에는 전혀 없었으나, 50개의 기관은 4%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과 공개성에서는 20개 기관의 55%, 50개 기관의 74%가 정기적인 회의가 있으며 사업별 주민상호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20개 기관의 45%, 50개 기관의 18%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2000년에 설립된 50개의 기관 중 4%는 미흡한 것으로 4%는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환류정도에서는 공익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는데, 20개 기관의 90%, 50개 기관의 84%가 공익성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개 기관의 10%, 50개 기관의 12%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0년에 설립된 50개의 기관 중 4%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수행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사업계획대비 참여인원이 적정했는지, 사업담당자의 투여시간이 적정했는지, 사업에 대한 이해정도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여 20개 기관의

70%, 50개 기관의 78%가 매우 적절한 것으로, 20개 기관의 20%, 50개 기관의 18%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20개의 기관 중 10%는 미흡한 것으로, 50개의 기관 중 4%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21〉 成果領域의 算出成果 中 自活勤勞 頻度分布

(단위: 개소, %)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평가기준	평가 점수	20개기관	50개기관
				N(비율)	N(비율)
교육 및 공동체 조직을 위한 활동 (2)	교육실적 및 교육 참여인원	· 교육내용 및 횟수 · 교육 참여율 · 사업별 참여인원	3	19(95.0)	38(76.0)
			2	1(5.0)	10(20.0)
			1	-	-
			0	-	2(4.0)
지역사회 환류 정도 (1)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 공개성	· 정기적인 회의가 있는지 여부 · 사업별 주민상호간의 협력정도	3	11(55.0)	37(74.0)
			2	9(45.0)	9(18.0)
			1	-	2(4.0)
			0	-	2(4.0)
지역사회 환류 정도 (1)	지역사회 환류	· 공익성과 공공성이 있는가 · 지역사회 파급효과 · 지역사회공공서비스 지원정도	3	18(90.0)	42(84.0)
			2	2(10.0)	6(12.0)
			1	-	-
			0	-	2(4.0)
사업수행과정 (2)	사업수행과정의 적절성	· 사업계획대비 참여 인원이 적었는지 · 사업담당자의 투여시간 · 사업에 대한 이해정도	3	14(70.0)	39(78.0)
			2	4(20.0)	9(18.0)
			1	2(10.0)	-
			0	-	2(4.0)
사업수행과정 (2)	수익금 적립현황	· 수익금적립현황 - 사업별, 전체 · 사업단별 예산통장과 수익금 통장별도개설 관리여부	3	6(30.0)	17(34.0)
			2	8(40.0)	16(32.0)
			1	4(20.0)	9(18.0)
			0	2(10.0)	8(16.0)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익금 적립현황은 사업단별 예산통장을 관리하는지 여부와 수익금 금액에 따라서 통장을 관리하고 수익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20개 기관 중 30%, 50개 기관 중 34%이며, 통장을

관리하고 수익금이 100~1000만원인 경우가 20개 기관 중 40%, 50개 기관 중 32%, 통장을 관리하고 100만원 이하의 수익금이거나 1000만원 이하의 수익금이나 통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20개 기관 중 20%, 50개 기관 중 18%, 수익금이 없고 통장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20개 기관 중 10%, 50개 기관 중 16%로 나타났다.

<表 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이전의 기관의 경우 100~1000만원을 적립한 기관이 가장 많으며 평균 1005만원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기관의 경우도 역시 100~1000만원을 적립한 기관이 가장 많았고 평균 621만원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3-22> 自活勤勞 收益金 積立 現況

(단위: 천원, %)

금액	2000년 이전 20개 기관	2000년 이후 50개 기관
	개소(%)	개소(%)
없음	2 (12.5)	6 (13.0)
0~1,000 미만	0 (0.0)	8 (17.6)
1,000~5,000 미만	4 (25.2)	14 (30.8)
5,000~10,000 미만	5 (31.5)	8 (17.6)
10,000~20,000 미만	2 (12.6)	6 (13.2)
20,000 이상	3 (18.9)	4 (8.8)
계	16 (100.0)	46 (100.0)
평균/표준편차	10053.44 / 9521.16	6213.43 / 8481.78

3) 其他 特化事業

산출성과 중 기타 특화사업은 취업알선, 직업교육 등 특화된 자활 사업을 포괄하는 문항으로 이러한 특화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

는 기관이 20개 기관 중 45%, 50개 기관 중 42%, 운영하고 있으나 내용이나 실적이 다소 부족한 기관이 20개 기관 중 50%, 50개 기관 중 40%, 내용이나 실적이 미흡한 기관이 20개 기관 중 5%, 50개 기관 중 14%,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이 50개의 기관 중 4%를 차지하였다.

기타 특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근로의욕증진, 직업적응훈련, 알코올남용자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의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운전면허, 컴퓨터 등의 특정 기술을 교육하는 교육프로그램, 방과 후 교실, 이미용서비스, food bank 사업 등의 다양한 지역복지사업, 청소년 자활지원단, 그 외에 취업알선 및 상담, 공동부업장, 생업자금융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3-23〉 成果領域의 算出成果 中 其他 特化事業 頻度分布

(단위: 개소, %)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평가기준	평가 점수	20개기관	50개기관
				N(비율)	N(비율)
특화사업 수행(1)	특화사업 규모 및 실적	· 취업알선, 직업교육, 창업상담 등 특화된 자활운영 현황 · 사업참여규모 및 성과 ※ 가중치 200%	6	9(45.0)	21(42.0)
			4	10(50.0)	20(40.0)
			2	1(5.0)	7(14.0)
			0	-	2(4.0)

〈表 3-24〉 其他 特化事業

분류	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진로상담 프로그램 근로의욕증진 프로그램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알콜남용자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교육프로그램	컴퓨터교육 등의 기술교육 운전면허취득 프로그램 등
지역복지사업	방과후 교실 등 육아사업 중고의류매장 이미용서비스 food bank 사업 등
청소년자활지원단	
기타	취업알선, 상담 공동부업장 생업자금융자 쉼터, 자활프로그램 등 노숙자 프로그램 캠페인 등

다. 結果成果

‘성과영역’의 결과성과 항목은 상위프로그램 전환실적, 자활성공실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상위프로그램 전환실적은 20개 기관의 35%, 50개 기관의 28%가 3점을, 20개 기관의 45%, 50개 기관의 30%가 2점을, 20개 기관의 10%, 50개 기관의 18%가 1점을, 20개 기관의 10%, 50개 기관의 18%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성공실적 중 개인창업실적은 2000년에 설립된 50개의 기관에 한하여 1개의 실적만 있어도 모두 3점으로 평가하였으며 2000년 이전에 설립된 20개의 기관은 실적 정도에 따라 3, 2, 1점으로 평가하였다. 개인창업실적은 200% 가중치 문항으로 2000년 이전에 설립된 20개의 기관 중 35%가 개인창업실적이 있으며 사후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40%가 실적이 있으나 사후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15%가 실적과 사후지원이 모두 부족한 것으로, 10%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설립된 50개 기관은 48%가 1개 이상의 실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52%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表 3-25〉 成果領域의 結果成果 頻度分布

(단위: 개소, %)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평가기준	평가 점수	20개기관	50개기관
				N(비율)	N(비율)
상위 프로그램 전환 실적 (1)	프로그램별 상위단계 전환비율 (자활성공실적인 경우제외)	· 사업참여자 중 상위단계 전환비율정도 : 자활공동체/창업/취업	3	7(35.0)	14(28.0)
			2	9(45.0)	15(30.0)
			1	2(10.0)	9(18.0)
			0	2(10.0)	12(24.0)
자활성공 실적 (3)	개인창업 실적	· 창업 후 사후지원정도 (경영지원, 융자금에 대한 관리) ※ 가중치 200% 반영	6	7(35.0)	24(48.0)
			4	8(40.0)	-
			2	3(15.0)	-
			0	2(10.0)	26(52.0)
	취업실적	· 취업양태는 어떠한가 (일용직, 상용직) · 취업후 지속적인 관리는 되고 있는가	3	6(30.0)	14(28.0)
			2	9(45.0)	18(66.0)
			1	3(15.0)	10(20.0)
			0	2(10.0)	8(16.0)
	공동체창업 실적	· 업그레이트형 사업단에서 공동체로 발전한 경우 또는 신규공동체 설립, 운영 · 공동체 창업현황 ※ 가중치 300% 반영	9	2(10.0)	17(34.0)
			6	4(20.0)	-
3			2(10.0)	-	
0			12(60.0)	33(66.0)	

취업실적에서는 취업양태 및 취업후의 지속적인 관리에 따라 평가하여 20개 기관의 30%, 50개 기관의 28%가 취업실적이 있고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개 기관의 45%, 50개 기관의 66%가 실

적은 있으나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20개 기관의 15%, 50개 기관의 20%가 둘 다 부족한 것으로, 20개 기관의 10%, 50개 기관의 16%가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동체창업실적의 경우 개인창업실적과 마찬가지로 2000년에 설립된 50개의 기관은 1개의 실적만 있어도 모두 3점으로 처리되었다. 공동체창업실적 문항의 경우 300%의 가중치 문항이며, 2000년 이전에 설립된 20개의 기관 중 10%는 3점을, 20%는 2점을, 10%는 1점으로 평가되었으며 60%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설립된 50개의 기관 중 34%는 1개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66%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후견기관 결과성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은 평균이 3.69, 4.41건이며 표준편차가 5.04, 6.87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 시작된 50개의 기관이 2000년 이전에 시작된 기관들보다 오히려 상위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실적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3-26〉 自活後見機關 結果成果

	상위프로그램 전환		개인창업		취업		공동체창업	
	20개 기관	50개 기관	20개 기관	50개 기관	20개 기관	50개 기관	20개 기관	50개 기관
최소값	0	0	0	0	0	0	0	0
최대값	19	33	49	15	314	476	4	22
평균	3.69	4.41	5.56	1.03	35.64	21.29	0.44	0.95
표준편차	5.04	6.87	11.98	2.70	87.59	83.02	1.09	3.69

개인창업의 경우 평균 5.56건, 1.03건이며 표준편차가 11.98, 2.70으로 2000년 이전에 시작된 20개의 기관들이 평균이 훨씬 더 높으나 편

차가 크게 나타났다. 취업성과는 평균 35.64, 21.29건이며 표준편차가 87.59, 83.02로 모두 높게 나타나서 기관별로 취업성과의 차이가 큼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체 창업은 20개 기관이 평균 0.44, 50개 기관이 평균 0.95건이며 표준편차는 20개 기관이 1.09, 50개 기관이 3.69로 2000년 이후에 시작된 50개의 기관이 공동체 창업에 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에 설립된 자활후견기관이 상위프로그램 전환과 공동체창업에서 이전 설립기관들 보다 더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기관들이 자활공동체 형성에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펼친 것을 알 수 있다.

第 3 節 相關關係

1. 評價領域과 總點의 相關關係

평가영역과 총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이 평가결과를 높이기 위해 또는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과 집행과 성과의 영역에 있어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이다. 또한 각 영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시설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평가결과, 전체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우선 총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평가영역은 성과영역으로 나타났다(0.931). 즉, 자활후견기관의 성과가 높을수록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현장평가영역을 합한 최종총점과의 상관관계에서도 성과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최종총점에서는 계획영역

과 집행과정 영역이 현장평가를 제외한 총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성과영역은 상대적으로 다소 낮아졌다. 즉,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계획영역과 집행과정에 충실한 시설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장평가에서 성과위주보다는 과정에 대한 노력점수를 감안하고자 했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영역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계획영역은 집행과정 영역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집행과정영역은 성과영역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획과정이 잘되어있으면 잘되어있을 수록 집행과정 역시 잘 되어있으며, 집행과정이 잘 운영되어간다면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3-27〉 評價領域間 相關關係

	계획영역	집행과정영역	성과영역	총점	현장평가	최종총점
계획영역	1.000					
20개소	1.000					
50개소	1.000					
집행과정영역	0.594**	1.000				
20개소	0.541*	1.000				
50개소	0.599**	1.000				
성과영역	0.204	0.300*	1.000			
20개소	0.266	0.301	1.000			
50개소	0.164	0.285*	1.000			
총점	0.525**	0.565**	0.931**	1.000		
20개소	0.514*	0.520*	0.954**	1.000		
50개소	0.515**	0.570**	0.920**	1.000		
현장평가	0.430**	0.264*	-0.443*	-0.213	1.000	
20개소	0.496*	0.240	-0.416	-0.219	1.000	
50개소	0.407**	0.264	-0.474*	-0.234	1.000	
최종총점	0.640**	0.641**	0.846**	0.972**	0.021	1.000
20개소	0.649**	0.593**	0.875**	0.970**	0.023	1.000
50개소	0.628**	0.650**	0.833**	0.972**	0.000	1.000

註: *p<0.05, **p<0.01

2000년 이전 설립한 시설 20개소와 2000년 이후 설립한 50개소를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역시 성과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0년 이전 설립한 20개소의 경우, 성과영역이 전체 자활후견기관에 비해 총점과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2000년 이후 설립한 50개소의 경우에는 계획영역과 집행과정 영역이 전체 자활후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점과 더욱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 이후 설립된 50개소는 계획 및 집행과정 영역과 성과영역이 보다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2000년 이전 설립된 20개소는 각 평가영역이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전 설립된 20개소의 자활후견기관의 경우에는 범시행 이전의 자활지원센터의 형태 즉, 시범사업적 성격이 강해 평가영역별로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評價項目과 總點과의 相關關係

2001년 수행된 자활후견기관 평가결과, 평가항목과 총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자활후견기관이 평가점수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우선 계획영역을 살펴보면, 전체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총점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사업의 규모(0.554)로 사업규모가 크면 클 수록 전체 평가결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1년 현재 자활후견기관의 규모에 있어 편차가 크며, 자활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목표 역시 총점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는데 (0.503), 자활사업의 규모 못지 않게 사업목표 역시 자활사업에 얼마나 충실한지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음 사업목적의 명확성 (0.431),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0.429), 기관특성별 사업

(0.425)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의 규모 및 체계(0.370),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및 업무협조(0.369), 중장기발전 계획 및 비전(0.367), 지역주민 자원동원 및 협력정도(0.3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참여대상자 선정기준과 타후견기관과의 협력체계는 총점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의 유연성이 필요하며, 또한 2001년 현재 자활후견기관이 내적 운영에 비해 외적 운영과의 연계가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3-28〉 計劃領域의 評價項目과 總點과의 相關關係

평가항목 계획영역	상관관계 계수		
	전체 70개소	2000년 이전 20개소	2000년 이후 50개소
사업의 규모	0.554**	0.588**	0.526**
조직의 규모 및 체계	0.370*	0.208	0.412**
인력배치	0.238*	-0.132	0.319*
사업목표	0.503**	0.531**	0.483**
중장기발전계획 및 비전	0.367**	0.372	0.359*
기관특성별 사업	0.425**	0.622**	0.367**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0.429**	0.651**	0.317*
세부추진일정의 적절성	0.257*	0.354	0.182
사업목적의 명확성	0.431**	0.338	0.448**
사업참여대상자 선정기준	0.162	-0.059	0.204
참여대상자 만족도조사	0.161	0.137	0.169
수급자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조	0.289*	0.348	0.276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및 업무협조	0.369**	-0.011	0.481**
기업, 노동조합, 사회복지기관 및 보건의료기관, 기타관련NGO 등 지역자원협력정도	0.335**	0.224	0.380**
지역주민 자원동원 및 협력정도	0.355**	0.382	0.319*
참여자의 접근성정도	-0.005	0.219	-0.077
타후견기관과의 협력체계	0.027	-0.175	0.088

2000년 이전 설립한 20개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를 넘어서 사업계획의 구체성(0.651)과 기관특성별 사업(0.622)이 총점과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이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기관특성별 사업계획의 적합성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설립한 50개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가 총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0.526), 사업목표(0.48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및 업무협조(0.481), 사업목적의 명확성(0.448) 등이 높게 나타났다. 즉, 2000년 이후 설립한 50개의 시설의 경우에는 특성화에 앞서 사업계획의 안착화와 외부자원의 영향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행과정 영역의 평가항목과 총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전체 참여 대상자 대비 전담인력비중(0.448), 사업인력의 전문성과 경력(0.419) 등 인력규모가 총점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행과정에 있어 자활후견기관의 인력의 양과 질이 전체 자활후견기관의 평가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 외 민·관 재원 확보 및 관리상태(0.414),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적절성(0.389), 예산지출의 적절성(0.347), 운영주체의 지원정도(0.322), 운영규정의 적절성(0.255) 등의 순으로 총점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분장의 명확성, 시설관리 및 안전점검 상태, 시설 배치 및 장비관리 상태, 대인·대물보험 가입여부는 총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관리 및 안전점검, 장비관리 상태 등은 변별력이 높지 않은 항목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0년 이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조직체계보다는 재정운영이 총점과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 중 민·관재원 확보 및 관리상태(0.65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예산지출의 적정성(0.507),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적절성(0.478)이 높게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조직체계가 더욱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 인력규모 분야의 사업인력의 전문성과 경력(0.536), 전체 참여 대상자 대비 전담인력비중(0.438)이 총점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29〉 執行過程 領域의 評價項目과 總點과의 相關關係

평가항목	상관관계 계수		
	전체 70개소	2000년 이전 20개소	2000년 이후 50개소
집행과정 영역			
운영규정의 적절성	0.255*	0.338	0.216
업무분장의 명확성	0.020	-0.388	0.189
시설관리 및 안전점검 상태	0.210	0.213	0.279
시설배치 및 장비관리상태	0.122	0.208	0.098
대인, 대물보험 가입여부	0.077	-0.362	0.213
전체참여 대상자 대비 전담인력비중	0.448**	0.408	0.438**
사업인력의 전문성과 경력	0.419**	-0.084	0.536**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적절성	0.389**	0.478*	0.343*
운영주체의 지원정도	0.322**	0.308	0.365**
민·관재원 확보 및 관리상태	0.414**	0.651**	0.281*
예산지출의 적정성	0.347**	0.507*	0.248

마지막으로 성과영역을 살펴보면, 전체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자활공동체의 산출성과가 총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동체 구성원의 소득(0.660)이 총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활공동체 지역사회로의 환류(0.643), 자활공동체의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 및 공개성(0.640), 자활공동체 자산·자기자본 부채비율(0.639), 자활공동체 사업계획 달성정도(0.637), 자활공동체 경영

자문 연계정도 및 경영관련 교육실적(0.619), 자활공동체 후견기관의 관리정도(0.599), 자활공동체 인력 및 사업규모 대비 현실 적합성(0.5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공동체의 경우 구성원의 소득이 높을수록, 지역 사회로의 환류정도가 높을수록, 공동체의 운영구조가 민주적일수록, 사업 추진의 현실적합성이 높을수록, 경영기술이 높을수록 총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에 있어 자활공동체사업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그 외 투입성과 분야에서 자활공동체 사업 참여자 비율(0.585), 결과성과 분야의 공동체 창업실적(0.546)이 총점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 설립된 시설의 경우에도 자활공동체의 산출성과와 총점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 항목별로 살펴보면, 투입성과 영역에서 자활공동체 사업 참여자 비율(0.80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활공동체 경영자문 연계정도 및 경영관련 교육실적(0.768)이 전체 자활후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설립된 시설의 경우 역시 자활공동체의 산출성과와 총점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공동체 구성원의 소득(0.602), 지역사회로의 환류(0.593),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 및 공개성(0.589), 사업계획달성정도(0.585), 자산·자기자본 부채비율(0.580), 공동체 규모(0.5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활후견기관과 비교해 볼 때, 공동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영기술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결과성과 분야에서 공동체 창업실적(0.571)과 투입성과 분야에서의 전체 참여자 규모(0.537)가 총점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00년 이후 설립된 시설의 경우에는 성과영역의 질적인 부분보다는 양적인 부분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表 3-30〉 成果領域의 評價項目과 總點과의 相關關係

평가항목		상관관계 계수		
		전체 70개소	2000년 이전 20개소	2000년 이후 50개소
투 입 성 과	프로그램별 예산대비 집행실적	0.449**	0.452*	0.468**
	전체참여자 규모	0.508**	0.409	0.537**
	자활공동체사업 참여자 비율	0.585**	0.800**	0.491**
	초기상담실적 및 상담일지여부	0.350**	0.460*	0.277
	지속적 사후관리여부	0.286**	0.398	0.248
산 출 성 과 자 활 공 동 체	사업계획 달성정도	0.637**	0.736**	0.585**
	공동체 규모	0.543**	0.703**	0.577**
	공동체 구성원 소득	0.660**	0.759**	0.602**
	지역사회로의 환류	0.643**	0.729**	0.593**
	인력 및 사업규모대비 현실 적합성	0.589**	0.754**	0.525**
	후견기관의 관리정도	0.599**	0.686**	0.554**
	자산, 자기자본 부채비율	0.639**	0.754**	0.580**
	경영자문 연계정도 및 경영관련 교육실적	0.619**	0.768**	0.539**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 공개성	0.641**	0.718**	0.589**
	자 활 근 로	교육실적 및 교육참여인원	0.267*	0.142
의사결정구조 민주성, 공개성		0.257*	0.295	0.270
지역사회로의 환류		-0.005	0.124	-0.057
사업수행과정의 적절성		0.350**	0.503*	0.313*
수익금 적립현황		0.052	-0.117	0.111
특화사업 규모 및 실적		0.100	0.295	0.015
결 과 성 과	프로그램별 상위단계 전환비율	0.440**	0.251	0.486**
	개인창업실적	0.305*	0.491*	0.232
	취업실적	0.273	0.279	0.257
	공동체 창업실적	0.546**	0.599**	0.571**

第 4 節 比較分析

1. 地域別 比較分析

2001년 자활후견기관 평가결과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表 3-31>과 같다. 지역별 비교에서는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1개소만 해당하므로 제외하였으며, 총 15개 시·도의 자활후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시·도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表 3-31> 地域別 比較

지역	개소	F값	유의 확률	총점(183.7만점)				환산점수(100만점)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서울	11	1.892	0.045	104	134	123.72	8.882	56	73	67.35	4.835
부산	7			104	153	124.59	15.167	56	83	67.82	8.257
대구	4			130	157	146.60	13.027	71	86	79.81	7.092
인천	6			92	151	121.74	20.204	50	82	66.27	10.998
광주	3			117	135	127.13	9.348	64	73	69.21	5.089
대전	3			73	131	108.57	30.889	40	71	59.10	16.815
울산	2			93	152	122.18	41.719	50	83	66.51	22.711
경기	10			114	149	134.15	10.852	62	81	73.03	5.907
강원	4			142	157	148.85	8.294	77	85	81.03	4.515
충북	3			112	117	115.13	2.714	61	64	62.67	1.477
충남	3			100	156	130.57	28.017	55	85	71.08	15.251
전북	4			105	132	120.95	11.529	57	72	65.84	6.276
전남	3			101	130	120.01	16.749	55	71	65.33	9.118
경북	3			94	135	111.13	21.317	51	73	60.50	11.604
경남	3			100	142	114.45	24.151	55	77	62.30	13.147

분석결과, 강원지역의 자활후견기관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 경기, 충남, 광주, 부산, 서울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지역의 자활후견기관 이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가결과를 100

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받은 강원지역의 경우 80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받은 대전지역의 경우에는 60점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별 비교는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2. 運營主體別 比較分析

자활후견기관을 운영주체별로 사회단체, 학교, 종교단체, 복지단체, 노동단체로 분류하여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교에서 운영하는 자활후견기관이 평균 133.08, 100점 환산점수 72.44로 가장 높은 총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복지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노동단체 순으로 노동단체에서 운영하는 자활후견기관의 총점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편차가 가장 큰 곳은 노동단체이며 편차가 적은 곳은 학교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운영주체별 평가총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表 3-32〉 運營主體別 比較

운영주체	개소	F값	유의 확률	총점(183.7만점)				환산점수(100만점)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사회단체	19	0.931	0.451	92.34	156.68	122.28	21.37	50.27	85.29	66.56	11.64
학교	6			126.02	142.34	133.08	5.94	68.60	77.49	72.44	3.05
종교단체	26			100.35	155.68	127.20	13.62	54.63	84.75	69.24	7.41
복지단체	14			100.67	156.35	128.16	17.39	54.80	85.11	69.77	9.47
노동단체	5			73.34	151.35	115.75	30.64	39.92	82.39	63.01	16.68

3. 機關別 比較分析

기관별 비교분석은 2000년 이전 설립한 20개소와 2000년 이후 설립한 50개소를 나누어 실시하였다.

먼저, 2000년 이전 설립한 20개소의 경우, 100점 만점대비 점수를 살펴보면, 80점 이상이 6개 시설이며, 70점 이하가 7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60점 이하도 2개소로 나타났다. 20개소 평균점수가 71.27점이라고 할 때, 평균점수보다 낮게 나타난 시설이 10개소로 우리나라 초기 자활후견기관의 현재 수준이 제대로 정착화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역별 점수를 기관별로 비교해 보면, 계획영역의 경우 최대 만점(54점)을 받은 시설이 있으며 최소 41점으로 나타났다. 계획영역의 전체 평균(48.95)보다 낮은 시설은 7개소로 나타났다. 집행과정 영역 또한 최대 만점(29점)을 받은 시설이 있으며, 최소점(18점)과는 약 10점 정도의 편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24.90점)보다 낮은 시설은 8개소로 나타났다. 성과영역의 경우에는 최대점수를 받은 시설은 73점으로 만점(83점)과 약 10점 정도의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점은 25점으로 성과영역에서의 편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점수(47.80점)보다 낮은 시설은 12개소로 2001년 현재 자활후견기관의 성과영역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평가점수의 경우에는 중간수준의 시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3-33〉 20個所 自活後見機關別 比較

최종 순위	시설명	총점	100점 만점 대비 점수	영역별 점수			
				계획	집행과정	성과	현장평가 소견서
1	AA	157.35	85.66	53	28	68	8.35
2	AB	156.35	85.11	54	28	66	8.35
3	AC	155.68	84.75	51	27	71	6.68
4	AD	155.35	84.57	51	26	70	8.35
5	AE	151.68	82.57	48	24	73	6.68
6	AF	149.34	81.30	50	25	71	3.34
7	AG	135.01	73.49	47	29	54	5.01
8	AH	134.03	72.96	51	26	42	15.03
9	AI	132.03	71.87	53	25	39	15.03
10	AJ	131.03	71.33	51	27	38	15.03
11	AK	130.03	70.78	50	23	42	15.03
12	AL	129.70	70.60	49	26	38	16.70
13	AM	123.35	67.15	51	27	37	8.35
14	AN	121.36	66.06	52	23	33	13.36
15	AO	119.67	65.14	41	18	59	1.67
16	AP	116.35	63.34	43	28	37	8.35
17	AQ	114.36	62.25	48	24	29	13.36
18	AR	114.35	62.25	51	22	33	8.35
19	AS	100.67	54.80	44	22	33	1.67
20	AT	92.68	50.45	41	20	25	6.68

2000년 이후 설립된 50개소 자활후견기관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 대비 점수를 비교해 보면, 80점 이상의 시설이 4개소, 70점 이하의 시설이 3개소로 나타났다. 평균점수(71.27점)보다 낮은 시설은 7개소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설립된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대체로 중간수준의 시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계획영역의 경우에는 만점 54점에 최대값

이 53점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30점으로 나타났다. 평균 46.88점보다 낮은 시설은 18개소이다. 집행과정 영역의 경우에는 만점 29점에 최대 만점인 시설이 1개소로 나타났으며, 최소 17점을 받은 시설도 2개 시설로 나타났다. 평균점수(23.96점)보다 낮은 시설은 22개소이다. 성과영역은 만점인 84점에 비해 최대 76점을 받았으며, 최소점은 20점으로 편차가 매우 크다. 평균점수(46.36점)보다 낮은 시설은 32개소로 성과영역에서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表 3-34〉 50個所 自活後見機關別 比較

최종 순위	시설명	총점	100점 만점 대비 점수	영역별 점수			
				계획	집행과정	성과	현장평가
1	AA	156.68	85.29	49	26	75	6.68
2	AB	153.35	83.48	51	25	69	8.35
3	AC	151.35	82.39	45	27	71	8.35
4	AD	148.34	80.75	52	24	69	3.34
5	AE	143.01	77.85	47	24	67	5.01
6	AF	142.67	77.66	51	28	62	1.67
7	AG	142.34	77.49	44	28	67	3.34
8	AH	141.68	77.13	48	22	65	6.68
9	AI	141.68	77.13	48	23	64	6.68
10	AJ	137.01	74.58	46	25	61	5.01
11	AK	135.68	73.86	45	24	60	6.68
12	AL	135.03	73.51	53	29	38	15.03
13	AM	134.69	73.32	53	26	44	11.69
14	AN	134.69	73.32	49	26	48	11.69
15	AO	133.67	72.77	47	26	59	1.67
16	AP	131.69	71.69	50	27	43	11.69
17	AQ	131.03	71.33	50	28	38	15.03
18	AR	131.01	71.32	48	27	51	5.01
19	AS	129.70	70.60	52	27	34	16.70
20	AT	129.69	70.60	53	23	42	11.69

〈表 3-34〉 계속

최종 순위	시설명	총점	100점 만점 대비 점수	영역별 점수			
				계획	집행과정	성과	현장평가
21	AU	129.67	70.59	48	23	57	1.67
22	AV	128.69	70.05	51	27	39	11.69
23	AW	127.69	69.51	52	26	38	11.69
24	AX	126.02	68.60	52	28	36	10.02
25	AY	126.02	68.60	46	27	43	10.02
26	AZ	125.70	68.43	50	22	37	16.70
27	BA	125.69	68.42	48	25	41	11.69
28	BB	123.69	67.33	49	26	37	11.69
29	BC	123.69	67.33	47	24	41	11.69
30	BD	122.01	66.42	42	24	51	5.01
31	BF	121.35	66.06	49	26	38	8.35
32	BG	121.02	65.88	50	23	38	10.02
33	BH	121.01	65.87	42	20	54	5.01
34	BI	117.02	63.70	53	23	31	10.02
35	BJ	116.68	63.52	48	21	41	6.68
36	BK	116.35	63.34	47	26	35	8.35
37	BL	114.69	62.43	49	25	29	11.69
38	BM	113.69	61.89	45	23	34	11.69
39	BN	112.02	60.98	47	22	33	10.02
40	BO	108.02	58.80	43	22	33	10.02
41	BP	105.03	57.17	42	18	30	15.03
42	BQ	104.36	56.81	42	23	26	13.36
43	BR	103.68	56.44	49	20	28	6.68
44	BS	103.67	56.43	30	17	55	1.67
45	BT	100.67	54.80	45	17	37	1.67
46	BU	100.35	54.63	43	20	29	8.35
	BV	100.35	54.63	43	22	27	8.35
48	BW	94.02	51.18	42	22	20	10.02
49	BX	92.34	50.27	39	21	29	3.34
50	BY	73.34	39.92	30	20	20	3.34

第 4 章 政策提言

1. 評價道具의 再檢討

이번 평가는 사업이 실시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매우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구성하기가 힘들었고, 나아가 성과중심보다는 계획·과정 중심의 평가였다. 또한 질적 평가라기보다는 기관 및 프로그램 부문이 혼재된 양적 지표 중심의 평가였다. 이것은 차후 평가에서는 수정·개선되어 질적 중심의 평가체계로, 기관평가와 프로그램평가가 분리된 체계로 혹은 프로그램 중심의 평가체계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활후견기관 평가지표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이 분석결과를 유추하여 적어도 현재의 자활후견기관의 초기 원시성을 극복하는 표준화 모형의 개발로 이어져,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평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2. 評價結果 活用方案

가. 活用方案의 原則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자문·평가단」은 평가지표의 개발, 평가방법의 검토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검토하면서, 아래의 3가지 원칙을 정하였다.

첫째, 전체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기초자료로서 자활후견기관의 ‘표준화 모형개발’ 등 자활지원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1

차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공유한다.

둘째,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positive incentive를 도입하여 실무자 해외시찰, 프로그램비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한다. 나아가 우수기관의 경우에는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 등에 ‘자활후견기관 분소’ 등을 지정·지원하여 자활사업의 저변을 확대한다.

셋째, 최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나타날 경우 예산 차등, 지정 취소 등의 행정결정을 유연하게 검토한다.

단, 아직 사업시행이 일천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결정은 평가에서 반영되지 않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결정해야 한다.

나. 具體的 活用方案

자활후견기간 70개소를 평가한 결과 대체적으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자활사업자문·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가 최종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연구진의 판단으로는 먼저 20개 기관의 경우 상위 5개 기관(25%)정도에 대해서는 A등급을, 하위 5개 기관(25%)을 C등급으로, 그 가운데 10개 기관(50%)을 B등급으로 분류하며, C등급 중 최하위 1~2개 기관은 지정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50개 기관의 경우에도 상위 5개 기관(10%)을 A등급으로, 하위 10개 기관(20%)을 C등급으로, 그 가운데 35개 기관(70%)을 B등급으로 하며, C등급 중 최하위 1~2개 기관은 지정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C기관의 경우, 조건부로 국고 지원하여 해당기관이 최소한의 기준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번 평가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하여 크게 지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의 강화 및 개별기관별이 아닌, 광역별 혹은 전국적 사업조직을 통한 개별사업의 확대·강화를 구체화시켜야 한

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5대 공익형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침의 보완 및 정보센터의 기능강화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특히 사업의 주체인 후건기관의 종사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조직화하여 모든 성과를 사업단안에서 외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5대 공익형 표준화 사업'을 비롯한 사회적·공공적 일자리, 창업의 부분에 있어 우선적으로 '보호된 시장(Cared-Market)' 정책을 지방조례, 공동사업단 등으로 강화하여 지역 저소득 주민의 실제적인 자활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자활사업을 둘러싼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확대·강화는 매우 엄중하고도 관건적인 문제이다.

附 錄

1. 自活後見機關 評價對象 機關名單 / 81
2. 自活後見機關 評價委員 名單 / 85
3. 自活後見機關 評價結果 / 86
4. 自活後見機關 評價指標 / 91
5. 自活後見機關 評價問答 /105

附錄 1. 自活後見機關 評價對象 機關名單

	기관	관장	전화번호	FAX	주 소
1	서울강북	김성훈	02)980-4807	980-5197	서울시 강북구 미아6동 668-1
2	서울강서	이혜경	02)668-6689	668-6690	서울시 강서구 가양2동 1481 도시개발4단지 아파트내
3	서울관악	송경용	02)867-8381,2	854-1985	서울시 관악구 신림1동 1631-19 평화빌딩 2층
4	서울구로	최왕곤	02)838-5627	838-5628	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 734-15
5	서울노원	김홍일	02)939-3538	930-3924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404-7 불암노인정 2층
6	서울마포	한인영	02)312-7942,3	308-5804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85-108
7	서울성동	이강서	02)2236-6658	2236-6674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2가 225번지 4층
8	서울성북	정호성	02)927-2420	927-2421	서울시 성북구 동서문동 6가 220번지
9	서울송파	배명순	02)416-7119	423-2787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88-1
10	서울영등포	이수홍	02)848-0600	847-6137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3동 325-30 2층
11	서울은평	표선숙	02)307-1186	307-2128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8-15
12	부산금정	박서춘	051)508-2163	508-2123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산15
13	부산동구	김원진	051)633-3367	631-3991	부산시 동구 범일6동 1542-1
14	부산동래	구철수	051)529-8932	529-8933	부산시 동래구 명장2동 508-72
15	부산부산진	안하원	051)816-9633	808-1409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193-9번지 유신빌딩 2층
16	부산사상	박영규	051)301-8681	301-8683	부산시 사상구 모라3동 520-1
17	부산영도	조택자	051)403-4595	403-4596	부산시 영도구 동삼3동 1123
18	부산해운대	이윤호	051)543-0015	545-2542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62-362
19	대구남구	김경도	053)476-1991	476-1993	대구시 남구 이천동 557-9
20	대구서구	권말다	053)555-4848	555-4890	대구시 서구 내당1동 67-9

	기관	관장	전화번호	FAX	주 소
21	대구달서구	배영자	053)621-6612	627-2803	대구시 달서구 성당1동 84-5
22	대구북구	이기량	053)427-8592	426-8596	대구시 북구 칠성2가 409-75
23	인천계양	이원희	032)543-3370	554-2180	인천시 계양구 계산2동 931-47 3층
24	인천남구	양재덕	032)867-8413	867-5672	인천시 남구 학익1동 332-2
25	인천동구	조홍식	032)761-0766	761-2675	인천시 동구 화수2동 5번지 청소년생활관 내
26	인천부평	조성혜	032)525-1982	525-1052	인천시 부평구 부평3동 284-118 2층
27	인천연수	류재성	032)815-1995	821-1995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 621-3
28	인천중구	이상립	032)763-1989	763-1983	인천시 중구 전동2-1 (구)인천여고 3층
29	광주남구	김인제	062)676-5086	676-6762	광주시 남구 봉선 2동 145-1
30	광주 북구동신	김갑주	062)266-5533	266-3346	광주시 북구 장등동 72번지
31	광주 북구일터	김승원	062)524-0377	524-0378	광주시 북구 임동 153-6번지
32	대전대덕	김종생	042)933-9723	933-9722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189-6
33	대전동구	유낙준	042)622-8890	673-5051	대전시 동구 성남2동 495-1
34	대전중구	박병룡	042)253-7292	223-6560	대전시 중구 대사동 69-12 3층
35	울산남구	정주화	052)227-0991	227-0993	울산시 남구 선암동 564-23
36	울산북구	황미영	052)289-1984	288-1984	울산시 북구 염포동 139-1 염포 새마을금고 3층
37	경기광명	김만철	02)2616-7939	2616-1815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379-1 (구)시장관사
38	경기구리	정석구	031)569-1919	567-4130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27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2층 A-2호
39	경기 부천나눔	박태연	032)668-1016	668-101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53-6 흥덕빌딩 2층
40	경기 부천원미	박정호	032)654-7399	654-799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37번지

	기관	관장	전화번호	FAX	주 소
41	경기성남	임봉규	031)741-0120	732-012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279-1
42	경기수원	임영인	031)232-0179	223-017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111-59 대영빌딩 3층
43	경기도시흥시 시화일꾼	김철홍	031)497-7151	499-7294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613-9
44	경기도시흥시 작은자리	김영준	031)313-2733	315-2784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91-4
45	경기안산	박천웅	031)487-9596	487-9506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28-3 한미은행 3층
46	의정부	박유라	031)879-2733	875-0204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5-31 (구)의정부2동사무소 2층
47	강원강릉	김용배	033)642-4100	642-5816	강원도 강릉시 교1동 935-1 1층
48	강원정선	최원재	033)592-4115	592-4117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7리 한국통신 3층
49	강원춘천	이명근	033)253-4575	253-4576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668-10
50	강원태백	원응호	033)553-8888	553-8887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121-2
51	충북진천	고은영	043)533-5981	533-5983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319-1
52	충북청주	안광성	043)288-1432	288-143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14
53	충북충주	연재식	043)855-2800	855-2801	충북 충주시 교현2동 346-16 2층
54	충남공주	박노근	041)857-0029	857-0780	충남 공주시 반죽동 193-4
55	충남아산	박영재	041)546-1814	542-1814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1-8
56	충남천안	이윤기	041)552-0350	552-0355	충남 천안시 원성 1동 237-10
57	전북김제	노기보	063)544-9005	544-9003	전북 김제시 요촌동 368-24
58	전북남원	문홍근	063)632-4747	632-4774	전북 남원시 하정동 192-5
59	전북전주 덕진	최인규	063)232-8383	232-97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4-2
60	전북전주	허종현	063)288-9004	228-971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92-5

	기관	관장	전화번호	FAX	주 소
61	전남나주	조원탁	061)333-8890	333-8891	전남 나주시 대호동 307-1
62	전남여수	김정욱	061)652-4402	652-4403	전남 여수시 문수동 797번지
63	전남해남	서정복	061)535-0520	535-0520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451-5
64	경북구미	맹봉술	054)473-2134	473-2135	경북 구미시 황상동 110번지 구미종합사회복지관내
65	경북포항 남부	강호철	054)278-4472	278-6423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86-34
66	경북포항	이 형	054)249-0866	249-0867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346
67	경남김해	이성기	055)329-6370	329-6372	경남 김해시 외동 1261-3
68	경남마산	김현주	055)251-0649	251-0651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2동 224-7
69	경남창원	전창현	055)261-8219	275-2984	경남 창원시 두대동 145 종합운동장내 149-1호
70	제주시	김민호	064)722-8219	723-8219	제주도 제주시 오라1동 1163-4 종합운동장 야구장 2층

附錄 2. 自活後見機關 評價委員 名單

평가팀	학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자활지원단
1조	황미영	부산가톨릭대학교	김영선
2조	이문국	안산공과대학	조형수
3조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은성호
4조	홍경준	전북대학교	권상철
5조	오승환	호남대학교	서태욱
6조	이재원	부경대학교	안수진
7조	변재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경수
8조	이현송	호서대학교	이정희
9조	이인재	한신대학교	김원중
10조	이영환	성공회대학교	이경수
11조	김수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은성호
12조	유태균	숭실대학교	이정희

附錄 3. 自活後見機關 評價結果

1. 2000年 以前 設立한 20個 機關(가나다순)

	상	중	하
총점	경기성남 대구남구 대구북부 울산북구 천안 태백	관악 광주남구 대전동구 부산사상 서울노원 서울마포 서울성북 전주 포항	경기광명 부산동구 울산남구 인천동구 해남
계획영역	대구남구 대구북부 대전동구 전주	경기광명 경기성남 광주남구 부산사상 서울관악 서울노원 서울마포 울산북구 인천동구 천안 태백 포항	부산동구 서울성북 울산남구 해남
집행과정	대구남구 대구북부 부산동구 포항	경기광명 경기성남 부산사상 서울관악 서울노원 서울마포 울산북구 전주 천안 태백	광주남구 대전동구 서울성북 울산남구 인천동구 해남

	상	중	하
성과영역	경기성남 대구남구 대구북구 울산북구 천안 태백	광주남구 부산동구 부산사상 서울관악 서울노원 서울마포 서울성북 전주 포항	경기광명 대전동구 울산남구 인천동구 해남
현장평가	경기광명 광주남구 대전동구 서울노원 서울마포 부산사상 전주	대구남구 대구북구 부산동구 서울관악 울산남구 울산북구 인천동구 천안 태백	경기성남 서울성북 포항 해남

2. 2000年 以後 設立한 50個 機關(가나다순)

	상	중		하
총점	강릉	공주	광주동신	대전중구
	경기구리	광주일터	구미	마산
	부산금정	김제	김해	아산
	인천부평	나주	남원	인천중구
		대구달서	대구서구	창원
		대전대덕	부산동래	포항남부
		부산영도	부산부산진	
		부천나눔	부천원미	
		서울강북	서울강서	
		서울구로	서울성동	
		서울송파	서울영등포	
		서울은평	수원	
		시흥일꾼	시흥작은자리	
		안산	여수	
		의정부	인천계양	
		인천남구	인천연수	
		전주덕진	정선	
		제주	청주	
		춘천	진천	
		충주	해운대	

	상	중		하
계획영역	경기구리 광주동신 나주 대구달서 부산금정 서울강서 서울은평 시흥작은자리 의정부 인천남구 충주	강릉 광주일터 대구서구 부산영도 부천원미 서울구로 서울송파 수원 안산 인천계양 인천여수 정선 창원 춘천	공주 김제 대전대덕 부천나눔 서울강북 서울성동 서울영등포 시흥일꾼 여수자활 인천부평 전주덕진 진천 청주	김해 구미 남원 대전중구 마산 부산동래 부산부산진 부산해운대 아산 인천중구 제주 포항남부
집행과정	김해 대구달서 대전대덕 부산영도 서울강서 시흥일꾼 시흥작은자리 안산 의정부 인천남구 인천부평	강릉 공주 광주일터 김제 대구서구 부산금정 부천나눔 서울구로 서울송파 서울은평 여수 인천연수 전주덕진 제주 청주 충주	경기구리 광주동신 구미 나주 마산 부산동래 부천원미 서울성동 서울영등포 수원 인천계양 인천중구 정선 진천 춘천 포항남부	강북 남원 대전중구 부산부산진 부산해운대 아산 창원

	상	중		하
성과영역	강릉 경기구리 김해 공주 대구서구 부산금정 부천나눔 의정부 인천부평 정선 춘천	광주동신 김제 대전대덕 부산영도 부산해운대 서울강서 서울성동 서울은평 시흥일꾼 안산 인천계양 인천연수 전남나주 제주 충주	광주일터 대구달서 부산동래 부산부산진 부천원미 서울구로 서울송파 수원 시흥작은자리 여수자활 인천남구 진천 전주덕진 창원청주	서울강북 구미 남원 대전중구 마산 서울영등포 아산 인천중구 포항남부
현장평가	광주동신 구미 남원 대구달서 부천원미 서울구로 서울영등포 서울은평 수원 시흥일꾼 시흥작은자리 안산 인천계양 인천남구 인천연수 전남나주 전주덕진	강릉 공주 김제 대전대덕 부산동래 부산해운대 서울강북 서울성동 인천부평 제주 춘천 충주	경남마산 광주일터 대구서구 부산금정 부산영도 부천나눔 서울강서 아산 정선 청주 충북진천 포항남부	경기구리 김해 대전중구 부산부산진 서울송파 여수 의정부 인천중구 창원

附錄 4. 自活後見機關 評價指標

자활 후견기관 평가표

기관명	
소재지	
관장 성명	
실무책임자 성명	
운영주체	
종사자 수	
연락처	전화번호: () -
	FAX번호: () -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시 반드시 자세한 기관약도와 교통편을 알려주시고, 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 운영규정, 운영주체의 정관, 예산결산서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 일정

1. 자체평가서는 2001년 12월 16일까지 평가팀에 도착할 있도록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체평가 완료 후 2001년 12월 20일~12월 31일 사이에 전문가평가(외부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 시설별 구체적인 외부평가 일정은 각 개별기관에 추후 공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 평가표 발송 및 연락처

1. 주소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관 105호
자활후견기관평가작업반
2. E-mail: jeonggi@kihasa.re.kr 또는 wonsun@kihasa.re.kr
3. Homepage: www.kihasa.re.kr
4. 전화 : 02-355-8003(내선: 317, 246), 담당 : 임정기, 유원선
5. 전송 : 02-382-4583

자활후견기관 평가체계

1. 평가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지표수 (n=52)	
계획영역 (17)	사업계획 및 욕구파악(11)	지역별 사업계획의 구체성	5	
		기관특성별 사업계획의 적합성	4	
		대상자 선정 및 욕구 적절성	2	
	외부환경 및 자원연계(6)	외부자원동원의 적절성	6	
집행과정 영역(11)	조직체계(7)	조직의 체계성 및 관리의 적절성	5	
		인력규모	2	
	재정운영(4)	재원의 적절성	4	
성과영역 (24)	투입성과(5)	예산집행실적	1	
		사업별대상자 참여실적	2	
		사례관리실적	2	
	산출 성과 (15)	자활공동체 (9)	실적	3
			지역사회환류정도	1
			사업추진의 현실적합성	3
			경영기술	1
			공동체운영구조	1
		자활근로(5)	교육 및 공동체조직을 위한 활동	2
			지역사회환류정도	1
			사업수행과정	2
		기타특화사업(1)	특화사업수행	1
	결과성과(4)		상위프로그램 전환실적	1
			자활성공실적	3

2. 자활후견기관 평가지표

가. 계획영역(17)

1) 사업계획 및 욕구과약(11)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평가방법	평가자료	평가기준	평가 점수
지역별 사업 계획의 구체성 (5)	사업의 규모	관련서류	· 사업계획서 · 회의록	·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예산) · 예산서(보조금 및 자부담) · 사업계획서 작성과정 - 팀워크 작업정도	③ ② ① ① ①
	조직의 규모 및 체계	관련서류	· 인사전형서류 · 운영주체정관	· 인력규모 · 운영주체의 조직	③ ② ① ① ①
	인력배치	인사담당자 인터뷰	· 인사서류 · 관련서류	· 인력선발기준 및 전형방법 · 직원채용의 공개성과 합리성	③ ② ① ① ①
	사업목표	관련서류 및 사업담당자 인터뷰	· 사업계획서 · 사업평가서	· 사업목표설정과 기획의 구체성 · 사업목표에 대한 공유 및 인지정도	③ ② ① ① ①
	중장기 발전계획 및 비전	관련서류 검토 및 인터뷰	· 지역조사 보고서 · 사업계획서	· 발전비전의 구체성 · 직원의 직무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계획 · 단계별 행동계획 수립여부 · 지역사회주민의 사업 참여 계획	③ ② ① ① ①

※ 일반적인 세부지표 평가시, 관련 서류 및 당사자 인터뷰를 통하여 ‘잘 되어 있으면 ③’을,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①’을, ‘전혀 안되어 있으면 ①’을, ①과 ③의 가운데를 포괄적으로 ②로 판정함.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평가방법	평가자료	평가기준	평가점수
기 관 특 성 별 사 업 계 획 적 합 성 (4)	기관특성별 사업	관련서류 검토 사업담당자 인터뷰	· 지역현황 자료 · 사업계획서	· 지역사회특성의 사업 계획 반영 여부 · 기관의 주요 핵심사업	③ ② ①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관련서류 검토	· 재정보호 계획서 · 조직화방안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실현을 위한 자원동원계획 · 지역사회조직 및 네트워크 · 지역자원현황조사정도 · 재정보호계획	③ ② ① ①
	세부추진 일정의 적절성	관련서류 검토	· 사업계획서 및 평가서	· 사업추진 일정 수립 정도 · 인력(상근, 비상근, 자원봉사 등) 현황 · 예산확보 (외부자원포함)	③ ② ①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관련서류 검토 사업담당자 인터뷰	· 사업계획서 · 내용검토	· 목적의 구체성과 합리성 정도	③ ② ① ①
대상자 선 정 및 욕 구 적 절 성 (2)	사업참여 대상자 선정기준	관련서류 확인	· 선정기준 · 면접기록	· 사업에 대한 참여자 선정 적절성 · 선정기준의 적합성	③ ② ① ①
	참여대상자 만족도조사 ※)	관련서류 검토 및 사업담당자 인터뷰 참여주민 인터뷰	· 사업설명회 등의 자료 ·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 사업참여자에 대한 사업설명 횟수 · 만족도 조사방법 ※ 상대평가 실시	③ ② ① ①

※) 참여대상자 욕구조사는 평가위원이 5인 이상 면접실시하고, 결과 취합 후 상대평가

2) 외부환경 및 자원연계(6)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평가방법	평가자료	평가기준	평가 점수
외 부 자 원 동 원 의 적 절 성 (6)	수급자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조	관련서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서류 (공문, 계약서 등) · 업무협의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요원 접촉 (유선 및 면담) 관련업무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협력을 위한 노력정도 · 조건부 수급자의뢰 및 차상위계층 의뢰 등의 업무협조정도 	③ ② ① ①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지원 및 업무협조	관련서류 검토 사업담당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협의체 회의자료 · 지역자활지원 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사업지원 내역 · 자활협의체 참여 정도 · 2001년도 지역자활 지원 계획 수립시 참여 유무 	③ ② ① ①
	기업, 노동조합, 사회복지 기관 등 지역자원 협력정도	관련서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관련 연대사업 실적 및 내용 · 사업관련 의뢰 또는 협조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타기관 등과의 관계형성 노력 · 연대사업 경험유무 ※ 가중치 200%	③ ② ① ①
	지역주민 자원동원 및 협력정도	관련서류 검토 지역주민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참여 회의, 기관사업 설명회 등의 자료 · 지역주민 협력을 위한 활동기록 · 각종위원회 또는 주민조직 참여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관계 형성을 위한 접근방식 · 지역주민의 기관 운영참여방법 · 지역주민의 후견기관에 대한 인지도 · 직원의 지역사회 각종 위원회 또는 주민조직에 참여정도 	③ ② ① ①
	참여자의 접근성 정도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운영일지 · 업무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참여자의 송영 서비스 정도 · 사업참여자의 사업장 이동방법 · 사업소 접근성 	③ ② ① ①
	타후견기관과의 협력체계	관련서류 검토 담당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보고서 · 회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및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정도 · 협력에 의한 사업실적 여부 ※ 상대평가 실시	③ ② ① ①

나. 집행과정 영역(11)

1) 조직체계(7)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평가방법	평가자료	평가기준	평가점수
조직의 체계성 및 관리의 적절성 (5)	운영 규정의 적절성	관련서류 검토 사업담당자 인터뷰	· 운영규정 또는 업무세칙	· 운영규정 작성여부 및 작성과정	③ ② ① ① ①
	업무 분장의 명확성	관련서류 검토 사업담당자 인터뷰	· 운영규정 또는 업무분장관련 규정	· 업무분장표 · 위임전결정도	② ① ① ①
	시설관리 및 안전점검 상태	관련서류 검토 현장확인	· 시설 및 안전관리일지	· 사무실 및 사업장 안전점검정도 · 안전을 위한 장비 구비여부	② ① ① ①
	시설배치 및 장비관리 상태	관련서류 검토	· 비품관리대장 및 재물조사표	· 사업장 배치의 적절성 · 장비보수유지 관리정도	② ① ① ①
	대인, 대물보험 가입여부	관련서류 검토	· 관련서류	· 회계,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보험 가입 여부	② ① ① ①
인력 규모 (2)	전체참여 대상자대비 전담인력 비중	관련서류 검토 자원봉사자 인터뷰	· 인사기록대장 및 자원봉사 활동일지	· 사업별 참여인원 및 전담인력(상근, 비상근, 자원봉사 포함)	③ ② ② ① ① ①
	사업인력의 전문성과 경력	관련서류 검토	· 자격증※ · 교육훈련 참가기록 및 수료증	· 전문인력의 배치 정도 (전문성, 경력) · 사업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여부 · 사업관련 교육 훈련 여부	③ ② ② ① ① ①

※) 자격증의 경우, 사업에 반드시 불필요한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자격대상 포함

2) 재정부운영(4)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평가방법	평가자료	평가기준	평가 점수
재원의 적절성 (4)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적절성※)	관련서류 검토	· 예산결산서 · 후원금 및 자부담 근거자료	· 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 정도 · 재정관련 장부구비정도 · 예산 중 인건비, 사업비, 기관운영비의 비율정도	③ ② ① ①
	운영주체의 지원정도	관련서류 검토	· 운영주체 지원 관련자료	· 전체 세입에 대한 운영주체의 현금, 현물 지원정도 ※ 상대평가 실시	③ ② ① ①
	민,관재원 확보 및 관리상태	관련서류 검토	· 지원금내역 · 지원신청서 및 지원내역	· 민간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의 지원금정도 · 외부 프로젝트 지원정도	③ ② ① ①
	예산지출의 적정성	관련서류 검토	· 예산결산서 · 정보시스템 · 결재서류	· 예산편성에 따른 지출의 적정성 · 지자체로부터의 예산집행 관련 지적사항 · 결산에 따른 예산 계획 수립의 적절성 · 결재는 잘 이루어졌는가 (사전, 사후결재비율)	③ ② ① ①

※) 예·결산의 경우, 총액대비임(보조금, 자부담, 자활근로, 외부 프로젝트 등 전부포함).

다. 성과영역(24)

1) 투입성과(5)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평가방법	평가자료	평가기준	평가 점수
예산 집행 실적 (1)	프로그램별 예산대비 집행실적	관련서류검토	· 사업별 결산서	· 사업별 결산에 따른 집행의 적절성	③ ② ① ①
사업별 대상자 참여 실적 (2)	전체참여자 규모	관련서류검토	· 사업참여자 명부 · 상담내용 · 사업계획서 · 중도탈락 사유서	· 전체 참여자 대비 사업별 참여 · 상담인원 및 사업참여자 · 중도탈락정도 및 사유	③ ② ① ①
	자활공동체 사업 참여자비율	실적보고서 관련서류검토	· 사업참여자 명부	· 후건기관별 전체사업 참여 중 자활공동체 참여규모 ※ 상대평가 실시	③ ② ① ①
사관리 실적 (2)	초기상담실적 및 상담일지 여부	관련서류검토 담당자인터뷰	· 상담기록 · 상담일지	· 상담방법 및 내용 · 상담일지 작성	③ ② ① ①
	지속적 사후관리여부	관련서류검토 담당자인터뷰	· 관리대장	· 주기적 사후관리 정도 · 사후관리의 적정성	③ ② ① ①

2) 산출성과(15)

① 자활공동체(9)^{※)}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평가방법	평가자료	평가기준	평가 점수
실적 (3)	사업계획 달성정도	관련서류 검토	· 실적보고서 · 관련전문가의 접촉빈도	·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정도 · 업종개발을 위한 노력정도	③ ② ① ①
	공동체 규모	관련서류 검토	· 실적보고서	· 공동체 개소수 및 참여 인원규모 ※ 상대평가 실시 (20개 기관 대상)	③ ② ① ①
	공동체 구성원 소득	관련서류 검토	· 급여대장 및 연간 급여 비교자료 · 수입금지금액 읍면동 통보자료	· 사업에 따른 월평균급여 · 연간 수익금 규모	③ ② ① ①
지역 사회 환류 정도 (1)	지역 사회로의 환류	관련서류 검토 지역주민 인터뷰	· 실적보고서	· 자활공동체사업의 지역사회 파급정도 · 공동체 참여경로, 방법, 내용 · 자활공동체의 지역사회 기여정도	③ ② ① ①
사업 추진의 현실 적합성 (3)	인력(규모) 및 사업 규모대비 현실 적합성	관련서류 검토 공동체 구성원 (대표) 인터뷰	· 사업자등록증 · 사업참여자 현황	· 사업자등록 유무 및 대표자(주민)여부 · 사업참여 구성원 현황 (일반/차상위/수급권자)	③ ② ① ①
	후견 기관의 관리정도	관련서류 검토	· 업무일지 · 영업실적 · 업무일지 (또는 회의록)	· 담당직원의 업무 시간정도 · 생산물품 판매를 위한 판로개척지원 · 공동체형성을 위한 조직화 지원활동	③ ② ① ①
	자산, 자기자본 부채비율	관련서류 검토	· 대차대조표 또는 조사표 · 결산표 (2000.10~2001.9)	· 경영의 적정성 · 자산 중 순수자활공동체 자기자본 비율정도 · 부채현황과 상환가능성	③ ② ① ①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평가방법	평가자료	평가기준	평가 점수
경영 기술 (1)	경영자문 연계정도 및 경영관련 교육실적	관련서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서류 · 교육자료 및 교육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자문 연계정도 · 교육내용 및 횟수 	③ ② ① ①
공동체 운영 구조 (1)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공개성	관련서류 검토 실무자 및 참여주민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 정관 및 운영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또는 운영규정 제정여부 · 회의방식과 내용 	③ ② ① ①

② 자활근로(5)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평가방법	평가자료	평가기준	평가 점수
교육 및 공동체 조직을 위한 활동 (2)	교육실적 및 교육 참여인원	관련서류 검토	· 교육자료 · 교육관련 서류	· 교육내용 및 횟수 · 교육 참여율 · 사업별 참여인원	③ ② ① ① ①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공개성	관련서류 검토 사업참여인 인터뷰	· 회의록	· 정기적인 회의가 있는지 여부 · 사업별 주민상호간의 협력정도	③ ② ① ① ①
지역 사회 환류 정도 (1)	지역 사회로의 환류	관련서류검토	· 사업내용 · 언론보도 및 홍보내용 · 지원실적 보고서	· 공익성과 공공성이 있는가 · 지역사회 파급효과 · 지역사회공공서비스 지원정도	③ ② ① ① ①
사업수행과정 (2)	사업수행 과정의 적절성	관련서류 검토 사업담당자 인터뷰	· 사업계획서 · 사업실적 보고서 · 업무일지	· 사업계획대비 참여 인원이 적정했는지 · 사업담당자의 투여시간 · 사업에 대한 이해정도	③ ② ① ① ①
	수익금 적립현황	관련서류 검토	· 통장 · 수입, 지출장부	· 수익금적립현황 - 사업별, 전체 · 사업단별 예산통장과 수익금 통장별도개설 관리여부 ※ 상대평가 실시	③ ② ① ① ①

③ 기타 특화사업(1)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평가방법	평가자료	평가기준	평가 점수
특화 사업 수행 (1)	특화사업 규모 및 실적	관련서류 검토	· 사업실적 보고서	· 취업알선, 직업교육, 창업상담 등 특화된 자활운영 현황 · 사업참여규모 및 성과 ※ 가중치 200%	③ ② ① ①

3) 결과성과(4)

평가 지표	세부평가 지표	평가방법	평가자료	평가기준	평가 점수
상위 프로그램 전환 실적 (1)	프로그램별 상위단계 전환비율 (자활성공 실적인 경우 제외)	관련서류 검토 사업담당자 인터뷰	· 실적 및 운영현황 보고서 · 사례관리 기록부	· 사업참여자 중 상위단계 전환비율정도 : 자활공동체/창업/취업	③ ② ① ①
자활 성공 실적 (※) (3)	개인창업 실적	관련서류 검토 창업자인터뷰	· 사업계획서 · 융자지원 관련서류	· 창업 후 사후지원정도 (경영지원, 융자금에 대한 관리) ※ 가중치 200% 반영	③ ② ① ①
	취업실적	관련서류 검토	· 실적보고서 · 사례관리 서류	· 취업양태는 어떠한가 (일용직, 상용직) · 취업후 지속적인 관리는 되고 있는가	③ ② ① ①
	공동체 창업 실적	관련서류 검토	· 실적보고서	· 업그레이트형 사업단에서 공동체로 발전한 경우 또는 신규공동체 설립, 운영 · 공동체 창업현황 ※ 가중치 300% 반영	③ ② ① ①

* 현장평가 소견서

(지역특성, 수급자 규모, 직원이직율, 공동부업장 실적, 기관장 업무과약능력, 공동체 노력 정도 등 반영)

기관명: _____

아래의 표 양식에 따라 평가팀의 소견을 기록해 주십시오.

부문	평가팀 소견	수준
기관라운딩		
주요사업관찰		
클라이언트 면담		
직원면담		
현장평가 협조정도		
현장평가 종합소견		

	평가위원성명	확인(서명)
평가팀장		
평가위원		

附錄 5. 自活後見機關 評價問答

Q1. 평가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1. 평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평가위원 교육
-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현장평가 실시
- 2002년 1월 평가종합

Q2. 위의 평가일정과 관련하여 현장 평가시 개별 자활후견기관
이나 지부단위의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A2. 현장방문 평가시 기관에 행사가 있다면 시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미리 예정된 일정을 보건사회연구원
혹은 협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Q3. 평가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

A3. 평가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자활후견기관평가작업반 정리(코드 지침서 작성) → 평가위원회 정량지표 확인 → 현장방문 평가 → 평가종합 → 평가결과 보고회

Q4. 자체평가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A4. 자체평가보고서는 12월 16일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내실 곳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내시는 방법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

이메일 주소 : jeonggi@kihasa.re.kr

wonsun@kihasa.re.kr로 보내시면 됩니다.

※ 이메일로 보내실 때는 한글화일이나 엑셀화일 공통으로 다음과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서울00자활후견기관이라 할 때 파일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00자체평가.hwp 또는 서울00자체평가.xls

※ 여러개의 파일을 보내실 때는 ZIP으로 묶어 보내시는 것이 편하시겠지요 이때에도 파일명은

● 서울00자체평가.ZIP입니다.

※ 이메일을 보내신 후 바로 담당자(보건사회연구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16일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관 105호

자활후견기관평가작업반

Q5. 평가와 관련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A5. 평가에 대한 문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활후견기관 평가작업반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협회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담당자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락처 및 담당자

임정기 선생(한국보건사회연구원) 02-355-8003(내선 : 317)

유원선 선생(한국보건사회연구원) 02-355-8003(내선 : 246)

Q6.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A6.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 운영규정(또는 운영세칙), 운영주체의 정관, 예산·결산서

Q7. 제출서류의 순서가 있나요 ?

A7. 물론 순서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체평가보고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평가서
4. 운영규정
5. 운영주체의 정관
6. 예산·결산서

Q8. 자체평가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A8. 자체평가보고서는 기관의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여 기관운영 현황, 사업추진현황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운 받으신 『자활후견기관평가지표』의 평가점수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보고서가 필요하냐는 질문이 있는데 자체평가보고서는 별도의 보고서 필요없이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Q9. 평가항목 중 상대평가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A9. 상대평가에 대해서는 자체평가에서 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만, 20개와 50개 자활후견기관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평가위원회에서 점수를 결정합니다.

상위 25%는 3점, 중위 50% 2점, 하위 25%는 1점, 실적·근거가 전혀 없으면 0점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단, 위 상대평가 중 '공동체 규모'에 대해서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지정된 20개 기관에 대해서만 상대평가를 합니다. 2000년 지정된 50개 기관에 대해서는 1개 이상의 실적만 있으면 3점으로 절대평가 합니다.

상대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역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계획영역	대상자선정 및 욕구 적절성	참여대상자 욕구조사
"	외부자원동원의 적절성	타후견기관과의 협력체계
집행과정영역	재원의 적절성	운영주체의 지원정도
성과영역 (투입성과)	사업별대상자참여실적	자활공동체사업 참여자비율
성과영역 (산출성과)	(자활공동체)실적	공동체규모
성과영역 (산출성과)	(자활근로)사업수행과정	수익금 적립현황

Q10. 현장평가소견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작성되는 것입니까?

A10. 현장평가소견서는 평가위원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현장평가소견서에는 지역특성, 수급자규모, 직원이직율, 공동부업장 실적, 기관장 업무파악능력, 공동체노력 정도 등이 반영됩니다.

Q11. 현장평가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A11. 현장평가 일정은 사전에 각 기관별로 공지가 됩니다. 협회에 사전에 각 기관별 또는 지부행사와 관련한 일정은 이미 협회에서 취합하였기 때문에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이 공지됩니다.

현장평가 진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평가위원 기관 도착 → 기관장 및 실무자 면담 → 기관라운딩
(현장방문포함) → 평가지표에 따른 확인(실무자 및 주민 인터뷰
포함) → 정리

현장평가지 관련서류 등은 평가지표에 따른 순서대로 미리 정
리하여 놓으시면 현장평가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Q12. 인력선발과 관련하여 농어촌, 탄광지역과 같은 특수지역
등은 인력선발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지
표에 인력선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A12.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역내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대학이 없는 경우나 있다하더라도 선발하
기가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현장 방문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력선발의 어려운 점
에 대한 사유를 첨부하시면 「현장평가소견서」에서 반영됩니
다. 다만 인력선발과 관련한 관련 근거자료는 필요하겠지요.

Q13. 평가자료 중 많은 자료 및 서류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평가시 제시
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A13. 예.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관별

로 다르겠지만 잘 정리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기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금번 평가에서는 입증가능한 모든 자료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일지, 사진, 실무자 수첩, 현수막, 자료집 등 기관에서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인정합니다.

Q14. 계획영역 중 대상자선정 및 욕구의 적절성 부분에서 참여 대상자 욕구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위원이 5인 이상 면접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A14. 사업참여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평가위원이 무작위로 선발합니다. 기관에서는 사업별 참여 주민 리스트를 평가위원에게 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Q15. 평가기준에 가중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5. 가중치가 부여된 세부평가지표는 ▲ 기업, 노동조합, 사회복지기관 및 보건의료기관, 기타 관련 NGO 등 자원협력 정도 ▲ 특화사업 규모 및 실적 ▲ 개인창업 실적 ▲ 공동체창업실적입니다.

점수계산은 예를 들면 특화사업규모 및 실적의 경우 200%인데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3점 × 2 = 6점으로 됩니다.

Q16. 인력규모 중 자격증 부분에 대해 질문입니다. 자격증의 경우 사업에 반드시 불필요한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자격 대상 포함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6. 평가지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자격증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관업무, 추진사업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장방문 평가시 평가위원들에게 자격증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Q17. 교육훈련 참가기록 및 수료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료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참가기록이 공식적으로 남겨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7. 수료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회비를 부담하지 않는 교육 등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참가한 교육의 자료집, 사진 등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Q18. 자활근로 수익금과 관련하여 평가대상기간(2000. 10.1 - 2001. 9.30)이 지난 후 수익금이 발생하여 대상기간동안은 수익금적립액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A18. 예. 사업별로 미불금,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 때는 계약서, 판매를 위한 보유물량정도, 계약금 중 선수금을 받은 경우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